

2022

' LIGO '

Philippines

adventure



평택대학교 사회봉사센터
PYEONGTAEK UNIVERSITY SOCIAL SERVICE CENTER



WORLD
FRIENDS
KOREA

I
해외봉사
소개

II
단원
소개

III
해외봉사
사전모임

IV
프로그램
소개

V
해외봉사
일정

VI
해외봉사
활동

VII
단원
소감문

VIII
해외봉사
결산내역



I 해외봉사 소개

★ 필리핀 동계 해외봉사

일정 : 2023년 1월 10일 ~ 21일 (11박 12일)

위치 : 필리핀 팜팡가(클락, 앙헬레스)

장소 : ICMC(국제기독교음악대학, 품성사관학교),
밋자오 센터

'LIGO'

“Life Goes On”

삶은 계속된다에서 영감

“연결”

에스페란토어는 누구나 배우기 쉬운 국제 공용어로써 **평택대학교 LIGO 해외봉사단**과 **필리핀**과의 가치 있는 **연결**의 의미를 부여했다.

II

단원 소개





‘LIGO’의 단장

류종현

‘LIGO’의 인솔자

이슬림



II 단원 소개

‘LIGO’ 교육부서



강유정
사회복지학과
2019121002



권예은
미국학과
2019115116



안희수
미국학과
2018115047



이승아
사회복지학과
2019121029



전은수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2020131024

‘LIGO’
생활부서



국중우
시각디자인학과
2016201003



최소연
경영학과
2020114038



박선영
미국학과
2020115032



배진완
시각디자인학과
2016201014



송효우
중국학과
2019115036

II 단원 소개

‘LIGO’ 위생부서



김지연
간호학과
2020124029



유아진
간호학과
2020124018



최선경
간호학과
2020124022



황민선
간호학과
2019124034



황예지
간호학과
2020124027

II 단원 소개

‘LIGO’ 체육부서



김세중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2020131004



김영빈
광고홍보학과
2022126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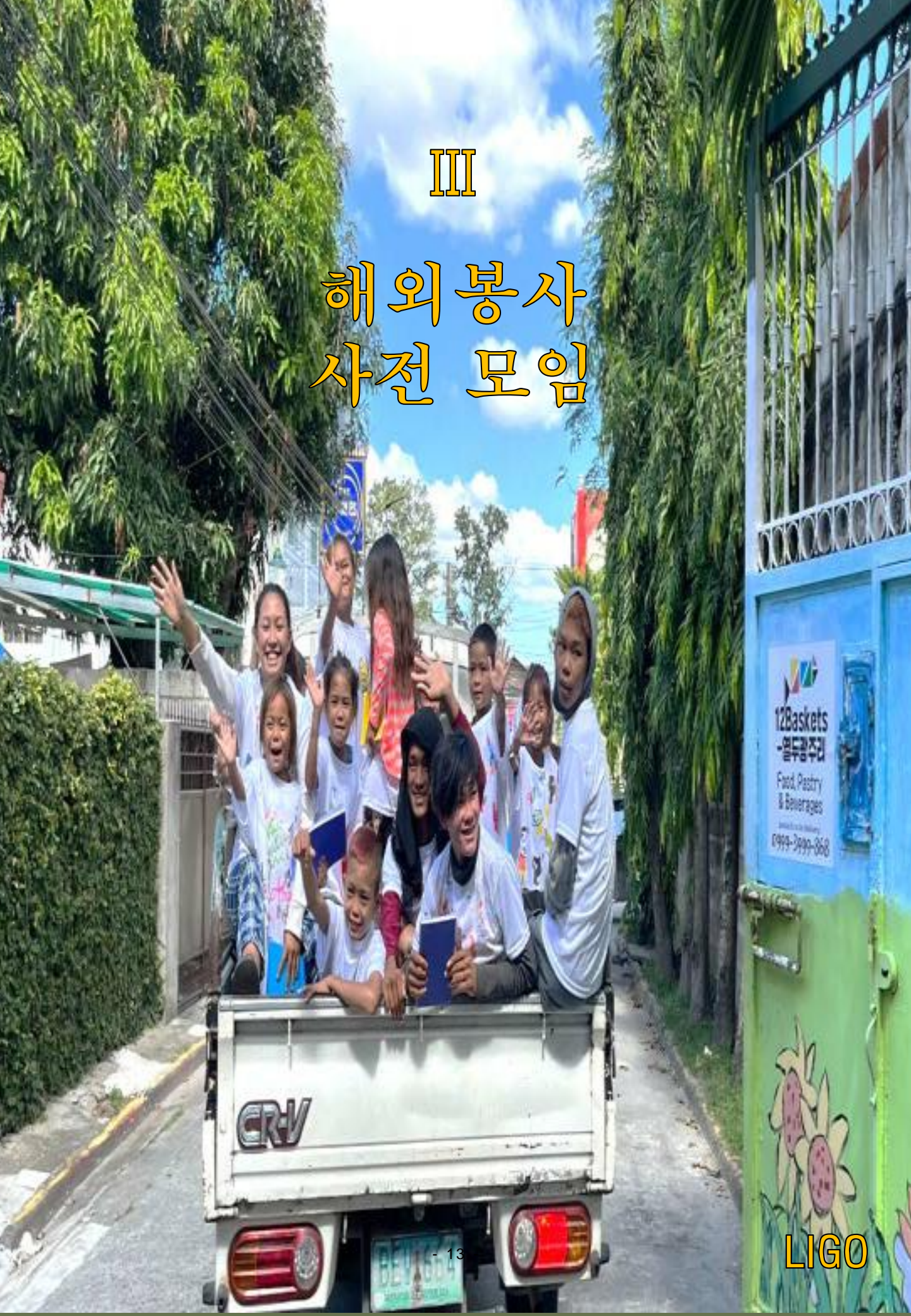
이아름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2019123025



이용빈
광고홍보학과
2022126015

III

해외봉사 사전 모임



Ⅲ 해외봉사 사전 모임

★ 일자 : 2022. 11. 22. ~ 12.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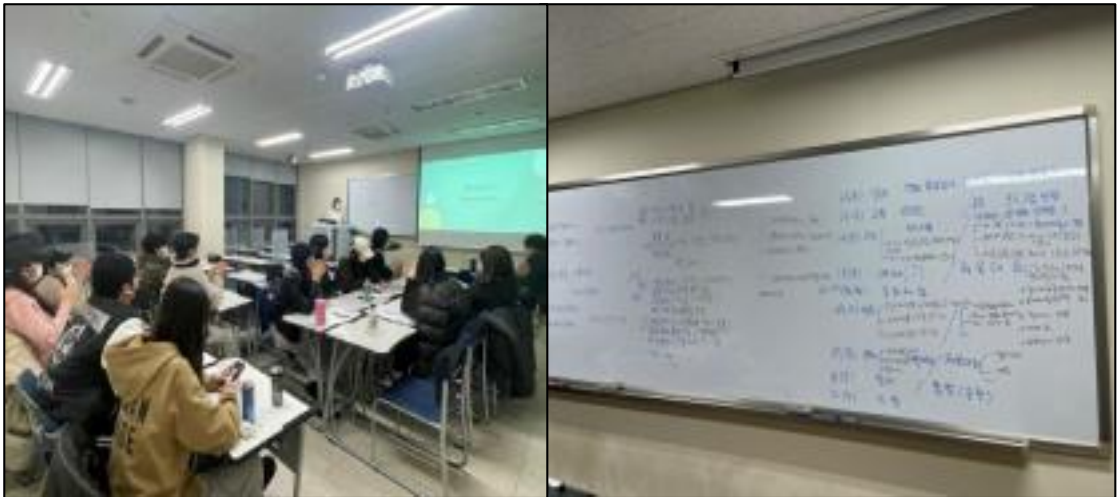


★ 회의 안건 ★

① 프로그램 발표 및 선정

Ⅲ 해외봉사 사전 모임

★ 일자 : 2022. 12. 13. 화.




★ 회의 안건 ★

- ① 팀, 부서 정하기
- ② 부서별 프로그램 선정
- ③ 단복 결정 (티셔츠, 조끼, 모자)
- ④ 군무 선정



Ⅲ 해외봉사 사전 모임

- ★ 일자 : 2022. 12. 20. 화.
- ★ 부서명 : 교육부서

참여자	권예은, 강유정, 안희수, 이승아, 전은수	모의 수업 주제	화산 실험
모의 수업 사진			
모의 수업 결과	<p>사전에 구매한 준비물을 활용하여 화산 실험의 주재료인 식초와 베이킹 소다, 물감의 양을 파악하는 실험을 해보며 1번의 수업에 필요한 재료의 양을 파악했다. 또한 점토를 활용하므로 손을 어떻게 닦을 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p>		

Ⅲ 해외봉사 사전 모임

★ 일자 : 2022. 12. 20. 화.


★ 부서명 : 생활부서

참여자	국중우, 박선영, 배진완, 최소연	모의 수업 주제	티셔츠 만들기
모의 수업 사진			
모의 수업 결과	<p>고무줄과 티셔츠 구김을 이용해 다양한 무늬를 찾는 시도를 했고, 염료끼리 섞어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어봤다. 염료를 만들 때 꽃소금의 유무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봤고, 꽃소금을 넣은 염료가 옷감에 균일하고 잘 침투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p>		

Ⅲ 해외봉사 사전 모임

★ 일자 : 2022. 12. 20. 화.

★ 부서명 : 위생부서

참여자	김지연, 유아진, 최선경, 황예지	모의 수업 주제	손 소독제 및 모기퇴치제 만들기
모의 수업 사진			
모의 수업 결과	<p>손 소독제와 모기퇴치제 만들기 개선사항으로 프로그램 시간이 부족하여 스티커 붙이기, 매직으로 그리기 중 선택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중·고등학생이나 성인들은 각 재료를 넣는 것에 참여시키고, 재료를 흘릴 위험이 있는 어린 친구들은 재료를 섞을 때 번갈아가며 참여시키는 것으로 결정했다.</p>		

Ⅲ 해외봉사 사전 모임


- ★ 일자 : 2022. 12. 20. 화.
- ★ 부서명 : 체육부서

참여자	김세종, 김영빈, 이아름, 이영빈	모의 수업 주제	역할분담 및 한글, 영어 대본 작성
모의 수업 사진			
모의 수업 결과	<p>대본을 보고 읽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영어 대본을 위우는 것으로 결정했다.</p>		

Ⅲ 해외봉사 사전 모임

★ 일자 : 2023. 01. 02. 월.

★ 부서명 : 교육부서

참여자	권예은, 강유정, 안희수, 이승아, 전은수	모의 수업 주제	한복 만들기
<p>모의 수업 사진</p>			
<p>모의 수업 결과</p>	<p>시간을 재면서 한복 만들기 남자, 여자 키트를 완성하였고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파악했다. 만드는 방법이 어려워 남자, 여자 2가지의 한복을 모두 만들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연령이 낮은 아이들에게는 한 종류의 한복만 만들도록 하고, 성인이나 고학년 학생들에게는 두 개의 한복 모두 만들기로 했다. 또한 한복 만들기 설명은 교육부서 모두가 숙지하고, 현장에서 단원이 먼저 만들면 그 후에 아이들이 따라 하는 방법으로 변경했다.</p>		

Ⅲ 해외봉사 사전 모임

- ★ 일자 : 2023. 01. 02. 월.
- ★ 부서명 : 생활부서

참여자	국중우, 박선영, 배진완, 송효우, 최소연	모의 수업 주제	비누 만들기
<p style="text-align: center;">모의 수업 사진</p>			
<p>모의 수업 결과</p>	<p>주문한 천연비누 만들기 키트가 알맞게 왔는지 확인하고 직접 만들어봤다. EM 워터 오일 별로 향이 어떻게 다른 지 파악하고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보며 실제 활동 시 설명 방법에 대해서 토의했다.</p>		

III 해외봉사 사전 모임

★ 일자 : 2023. 01. 02. 월.
 ★ 부서명 : 위생부서

참여자	황민선	모의 수업 주제	프로그램 대본 숙지
<p style="text-align: center;">모의 수업 사진</p>	<p style="text-align: center;">위생 부서- 모기 퇴치 스프레이 만들기</p> <p>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프레이 만들기를 진행하기 위해 모의수업을 합니다. 오늘은 곤충 퇴치 스프레이를 만들려고 하는데 곤충 퇴치 스프레이를 만들려고 합니다. 곤충 퇴치 스프레이를 만들려고 하는데 곤충 퇴치 스프레이를 만들려고 합니다. 곤충 퇴치 스프레이를 만들려고 하는데 곤충 퇴치 스프레이를 만들려고 합니다.</p> <p>hello, I'm Chae Eun-kyung, and I'm making mosquito repellent spray. Today, we're going to make it using a set of natural ingredients provided. As practitioners, you can describe simply better such as perfume base, essential, lavender, citronella essential oil and spray spray bottles, and spray and sign pens. Before we proceed, let me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essential oils. First of all, eucalyptus essential oil is a clear and strongly aromatic scent, and it is extracted from the leaves by water vapor distillation, and the extraction amount is 1 to 1%, which is a light yellow oil that is close to colorless. The second lavender commercial essential oil is white used in various places such as cosmetics, all treatments, and used to stabilize the mind and soothe the mind and body. Lastly, Citronella Essential Oil is a mosquito repellent that we commonly know, and it is an essential oil that is used a lot in perfume. Let's start making mosquito repellent spray now. First, your task number one spray bottles according to your taste using sign-sprayers, and sign pens. After decorating for about 10 minutes I'm going to start making a spray now. Open the lid of the perfume base and pour 3 ml of these essential oils. Are you done? Next, shake it so that the perfume</p>	<p style="text-align: center;">위생부서- 생존 매듭 만들기</p> <p>Hello, I'm Youbin, the instructor of today's survival knot bracelet program. Please call me Li.</p> <p>The way used in the survival knot bracelet we will make is a method used when it is dangerous to rescue drowning directly.</p> <p>I think here in Philippines, you might stay in the water due to the hot weather.</p> <p>When emergency, tie the buoyant knot to a strong string this knot method and deliver it to the drowning person!</p> <p>It's also easy and great as an emergency bracelet, right?</p> <p>Then let's make it! There are two colors, so you can take the color you want. First, you need a string, tape, scissors, and a lighter to make a paracord bracelet.</p> <p>Do you have scissors, a lighter, and a tape in your kit? If not don't, please call us.</p> <p>Now I'm going to explain the process.</p> <p>First, fold the string in half, put it in the ring, and put the string in between.</p> <p>I'll put a string on the other side of the ring, too.</p> <p>Then, stretch the string to fit your wrist and tape the length.</p> <p>After tying it, make a ring with the left string up, and make a ring with the right string down, and tie each other's string between the rings.</p> <p>This time, make the other side ring on the right string, and make a ring down the left string, and put each other's string between the rings and tie them.</p>	
	<p style="text-align: center;">위생 부서- 손소독제 만들기</p> <p>Hello, I'm Kim Il yeon. We're going to make hand sanitizer today. How many times do you wash your hands a day? (answer) When do you wash your hands? (Before eating, after going to the bathroom) We should wash our hands often!!!! at least 8 times COVID-19 is getting worse therefore, hand washing is very important.</p> <p>Now we start.</p> <p>We need Aloe gel, Alcohol base, Natural Essential Oil, glycerin, Green tea extract Sticker, 6 containers. 알로에 겔, 알코올 베이스, 천연 에센셜 오일, 식물성 글리세린, 녹차추출물,스티커, 용기 6개</p> <p>First, Put all the liquid in the kit into a paper cup. Second, Using wooden spatula, mix the mixed liquid evenly so that it doesn't lump. Third, Pour into the prepared 6 spray containers without being too full, then close the lid on the spray. Lastly, if you put on the hand sanitizer sticker, the aloe natural hand sanitizer is complete. You can decorate it freely with a sign pen without putting a sticker on it. It's done. Spray this hand sanitizer frequently to prevent infection. Thank you.</p>	<p>Repeat these two processes until the end.</p> <p>Raise your hand if you're done.</p> <p>Turn the rest and make enough rings and put in two strands. After that, cut the remaining string with scissors and fix it with a lighter! You did a great job.</p> <p>Please raise your hand if you have difficulty doing it. We'll go.</p> <p>Did you all complete the pretty survival knot bracelet? Everyone did a great job. Don't forget this knot we learned today and make sure to use it when necessary when playing in the water or fishing. Thank you for your efforts. Everyone!</p>	
<p style="text-align: center;">모의 수업 결과</p>	<p>모기퇴치제, 손 소독제, 생존 매듭 팔찌 만들기의 한글 대본과 영어 대본에 어색한 표현이 있는지 확인했다. 키트를 갖고 오지 않아서 위생 부서 수업은 진행하지 않았고, 다음 회의 때 생존 매듭 팔찌를 한 번 더 진행하기로 했다.</p>		

Ⅲ 해외봉사 사전 모임

★ 일자 : 2023. 01. 02. 월.

★ 부서명 : 체육부서

참여자	김세종, 김영빈, 이아름, 이영빈	모의 수업 주제	준비물 확인 및 프로그램 연습
모의 수업 사진			
모의 수업 결과	<p>dotzibi 원반 피구는 전 연령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단체 줄넘기의 경우 저학년은 경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줄을 이용한 림보를 대체 프로그램으로 결정했다.</p>		


Ⅲ 해외봉사 사전 모임

- ★ 일자 : 2023. 01. 05. 목.
- ★ 부서명 : 교육부서

참여자	권예은, 강유정, 안희수, 이승아, 전은수	모의 수업 주제	동요 배우기
<p>모의 수업 사진</p>			
<p>모의 수업 결과</p>	<p>코딩한 상어가족 동요 가사를 조별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 단어씩 알려주며 필리핀어로 먼저 동요를 부른 후 한국어로 동요를 불렀고, 아이들이 재미있게 외울 수 있도록 노래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단원들이 필리핀어 발음을 따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코딩지에 필리핀 발음을 한국어로 써놓는 것으로 수정했다.</p>		


Ⅲ 해외봉사 사전 모임

- ★ 일자 : 2023. 01. 05. 목.
- ★ 부서명 : 생활부서

참여자	국중우, 박선영, 배진완, 송효우, 최소연		모의 수업 주제	티셔츠 재실험, 벽화 그림 구상
모의 수업 사진				
모의 수업 결과	<p>티셔츠 종류가 변경되어 염료 테스트를 재진행했고, 기존에 진행하려고 했던 티셔츠에 비해 염료가 덜 흡수되어 보완할 방법에 대해 의논했다. 또한 멕시코 교회에 그릴 벽화 디자인에 대해서 찾아보며 이야기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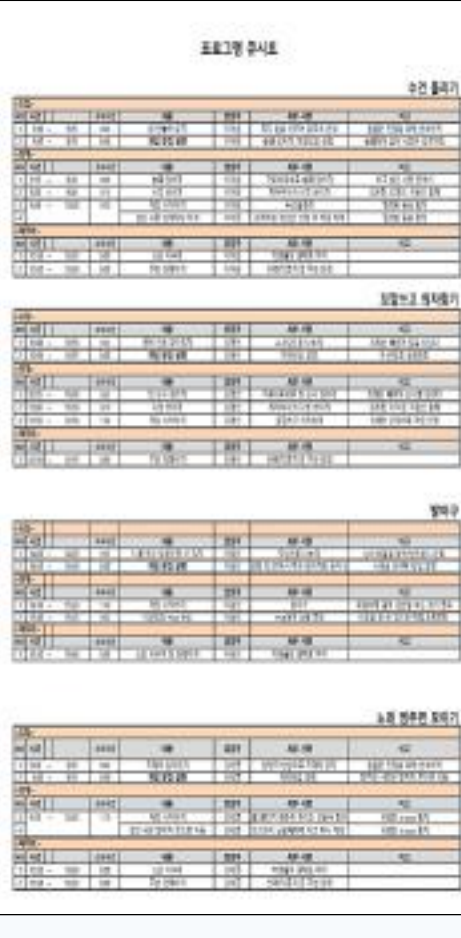
Ⅲ 해외봉사 사전 모임

- ★ 일자 : 2023. 01. 05. 목.
- ★ 부서명 : 위생부서

참여자	김지연, 유아진, 최선경, 황민선, 황예지	모의 수업 주제	생존매듭 팔찌 재실험
<p>모의 수업 사진</p>			
<p>모의 수업 결과</p>	<p>프로그램, 기부할 의약품을 모두 모아 놓고 물품의 개수를 확인하고 물품을 분배했다. 물품 중 액체가 많아 타 부서에게 액체를 양도하고 위생부서가 타 부서 물품을 들고 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생존 매듭 팔찌 수업 시 실제 사용할 키트로 모의수업을 진행했고, 주 진행자가 과정을 설명하면 보조 진행자들이 설명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p>		

III 해외봉사 사전 모임

- ★ 일자 : 2023. 01. 05. 목.
- ★ 부서명 : 체육부서

참여자	김세중, 김영빈, 이아름, 이영빈	모의 수업 주제	체육대회 큐시트 작성																																																									
<p style="text-align: center;">모의 수업 사진</p>		<p style="text-align: center;">모의 수업 주제</p>	<table border="1"> <thead> <tr> <th>프로그램</th> <th>담당</th> <th>번호</th> <th>작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0">올림픽 응원곡</td> <td rowspan="10">이아름</td> <td>공유물</td> <td rowspan="10">체육대회 (1부, 2부) 응원곡 제작, 영상 촬영</td> </tr> <tr> <td>최영민</td> </tr> <tr> <td>김재현</td> </tr> <tr> <td>김정민</td> </tr> <tr> <td>박승우</td> </tr> <tr> <td>최소연</td> </tr> <tr> <td>유하은</td> </tr> <tr> <td>이승민</td> </tr> <tr> <td>이영빈</td> </tr> <tr> <td>김민수</td> </tr> <tr> <td rowspan="3">체육부서 내부활동용</td> <td rowspan="3">김영빈</td> <td>김유중</td> <td>올림픽 축구경기 촬영 관련 시가호는지 확인</td> </tr> <tr> <td>서영우</td> <td>올림픽 축구경기 촬영 관련 시가호는지 확인</td> </tr> <tr> <td>최영민</td> <td>올림픽 축구경기 촬영 관련 시가호는지 확인</td> </tr> <tr> <td rowspan="10">단체 촬영기</td> <td rowspan="10">이아름</td> <td>공유물</td> <td>단체촬영기 촬영기 1</td> </tr> <tr> <td>박승우</td> <td>단체촬영기 촬영기 2</td> </tr> <tr> <td>최소연</td> <td>단체촬영기 촬영기 3</td> </tr> <tr> <td>김재현</td> <td>단체촬영기 촬영기 4</td> </tr> <tr> <td>김승우</td> <td>단체촬영기 촬영기 5</td> </tr> <tr> <td>유하은</td> <td>단체촬영기 촬영기 6</td> </tr> <tr> <td>이승민</td> <td>단체촬영기 촬영기 7</td> </tr> <tr> <td>이영빈</td> <td>촬영 관련 개수 세기</td> </tr> <tr> <td>최영민</td> <td>촬영 관련 개수 세기</td> </tr> <tr> <td>김민수</td> <td>촬영 관련 개수 세기</td> </tr> <tr> <td rowspan="4">기타</td> <td rowspan="4">최영민</td> <td>박승우</td> <td>계정 14분 54초는 기록 확인까지</td> </tr> <tr> <td>최소연</td> <td>촬영 관련 촬영기 촬영기</td> </tr> <tr> <td>최영민</td> <td>촬영 관련 촬영기 촬영기</td> </tr> <tr> <td>최영민</td> <td>촬영 관련 촬영기 촬영기</td> </tr> </tbody> </table>	프로그램	담당	번호	작업	올림픽 응원곡	이아름	공유물	체육대회 (1부, 2부) 응원곡 제작, 영상 촬영	최영민	김재현	김정민	박승우	최소연	유하은	이승민	이영빈	김민수	체육부서 내부활동용	김영빈	김유중	올림픽 축구경기 촬영 관련 시가호는지 확인	서영우	올림픽 축구경기 촬영 관련 시가호는지 확인	최영민	올림픽 축구경기 촬영 관련 시가호는지 확인	단체 촬영기	이아름	공유물	단체촬영기 촬영기 1	박승우	단체촬영기 촬영기 2	최소연	단체촬영기 촬영기 3	김재현	단체촬영기 촬영기 4	김승우	단체촬영기 촬영기 5	유하은	단체촬영기 촬영기 6	이승민	단체촬영기 촬영기 7	이영빈	촬영 관련 개수 세기	최영민	촬영 관련 개수 세기	김민수	촬영 관련 개수 세기	기타	최영민	박승우	계정 14분 54초는 기록 확인까지	최소연	촬영 관련 촬영기 촬영기	최영민	촬영 관련 촬영기 촬영기	최영민	촬영 관련 촬영기 촬영기
프로그램	담당	번호	작업																																																									
올림픽 응원곡	이아름	공유물	체육대회 (1부, 2부) 응원곡 제작, 영상 촬영																																																									
		최영민																																																										
		김재현																																																										
		김정민																																																										
		박승우																																																										
		최소연																																																										
		유하은																																																										
		이승민																																																										
		이영빈																																																										
		김민수																																																										
체육부서 내부활동용	김영빈	김유중	올림픽 축구경기 촬영 관련 시가호는지 확인																																																									
		서영우	올림픽 축구경기 촬영 관련 시가호는지 확인																																																									
		최영민	올림픽 축구경기 촬영 관련 시가호는지 확인																																																									
단체 촬영기	이아름	공유물	단체촬영기 촬영기 1																																																									
		박승우	단체촬영기 촬영기 2																																																									
		최소연	단체촬영기 촬영기 3																																																									
		김재현	단체촬영기 촬영기 4																																																									
		김승우	단체촬영기 촬영기 5																																																									
		유하은	단체촬영기 촬영기 6																																																									
		이승민	단체촬영기 촬영기 7																																																									
		이영빈	촬영 관련 개수 세기																																																									
		최영민	촬영 관련 개수 세기																																																									
		김민수	촬영 관련 개수 세기																																																									
기타	최영민	박승우	계정 14분 54초는 기록 확인까지																																																									
		최소연	촬영 관련 촬영기 촬영기																																																									
		최영민	촬영 관련 촬영기 촬영기																																																									
		최영민	촬영 관련 촬영기 촬영기																																																									
<p style="text-align: center;">모의 수업 결과</p>	<p>체육대회 인원 배치와 큐시트 표를 작성했다. 전체 프로그램은 부원들에게 소개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다. 부서 모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다른 부서에게 사진과 영상을 찍어 달라고 요청했다.</p>																																																											

Ⅲ 해외봉사 사전 모임

★ 일자 : 2023. 01. 09. 월. (발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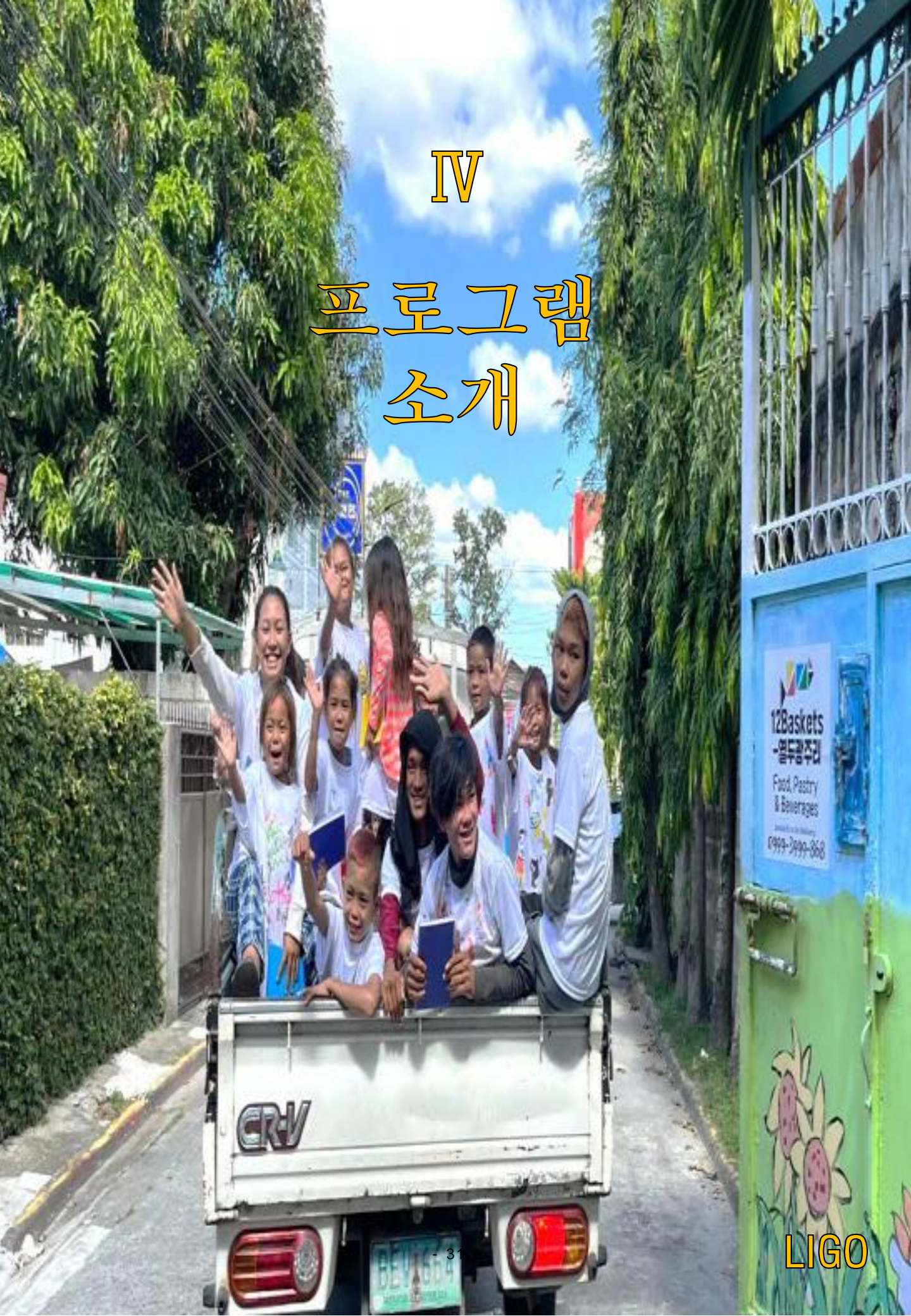


★ 회의 안건 ★



- ① 발대식 (인사말씀 및 선서)
- ② 경과보고 발표
- ③ 군무연습

IV





프로그램 소개





★ 부서명 : 교육부서

1. 활동 명	화산 실험
준비물	베이킹 소다, 식초, 물감, 점토, 네임펜, 종이컵, 일회용 접시
활동 소개	화산 폭발에 대한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 후 이를 문구와 식재료를 통해 재현해 보는 활동이다. 물감을 통해 화산의 빨간색을 표현하고 식초와 베이킹소다가 만났을 때 부푸는 원리를 설명하여 화산 폭발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더한다.
활동 사진	
2. 활동 명	한복 만들기
준비물	한복 색종이 키트, 풀, 가위, 양면 테이프
활동 소개	한복 색종이 키트를 활용하여 한국의 전통의상 한복에 대해 알리는 활동이다. 한복 종이접기를 하며 저고리, 배자 등 한복의 명칭을 알려주며 한국의 전통의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활동 사진	

★ 부서명 : 교육부서

3. 활동 명	상어가족 동요 배우기
준비물	상어가족 동요 가사, 색칠 도안, 색연필, 사인펜
활동 소개	노래와 함께 진행하는 활동으로 흥미를 끌 뿐만 아니라 상어가족 동요를 한국어로 알려주며 한국어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또한 조별로 상어가족 도안을 색칠하는 활동을 통해 팀워크를 경험한다.
활동 사진	 
4. 활동 명	이름표 만들기
준비물	네임펜, 사인펜, 색연필, 명찰 목걸이
활동 소개	자신의 이름을 한국어로 적는 방법을 배우고, 직접 말해보도록 한다. 이름표를 직접 꾸미고 선생님들과 한국 이름을 부르며 유대감을 높인다.
활동 사진	 



★ 부서명 : 생활부서

1. 활동 명	타이다이 티셔츠 만들기
준비물	흰 티셔츠, 염료, 꽃소금, 고무줄, 비닐봉투, 대야, 물
활동 소개	<p>흰 티셔츠와 다양한 색상의 염료를 통해 티셔츠의 구김과 어떤 컬러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이 나오는 실용적이며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다. 티셔츠를 물에 적신 후, 다양한 모양(ex 파배기, 회오리 등)으로 구김을 주고 고무줄로 단단히 고정한 후에 염료와 물을 적당량 섞어 티셔츠에 서서히 부어주면 티셔츠가 완성된다. 간단하고 빠른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p>
활동 사진	
2. 활동 명	벽화 그리기
준비물	페인트, 도안, 페인트 트레이, 마스킹테이프, 흰색 페인트펜, 롤러, 붓, 신나, 팔 토시, 작업복
활동 소개	<p>벽화 그리기는 멕시코 교회 외부 콘크리트 벽면과 옆 건물의 마주 보는 벽면에 채색한다. 창틀과 문틀, 바닥에 마스킹 작업을 한 후 진행하며 연한 하늘색 배경에 산과 강, 오리와 물고기, 해초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귀여운 그림체의 벽화를 제작한다.</p>
활동 사진	

★ 부서명 : 생활부서

3. 활동 명	천연 비누 만들기
준비물	비누베이스, 지퍼백, EM워터, 자연유래 분말, 보관 상자, 보관 비닐
활동 소개	<p>비누 만들기는 청결을 주제로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천연 비누 만들기는 일반 비누처럼 가열 없이 만들기 때문에 잘 무르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고, 피부에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천연비누는 파프리카, 시금치, 쪽 등 천연 가루로 색을 내고 라벤더, 오렌지, 레몬 등 오일로 원하는 향을 선택해 만든다.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 아이들에게 흥미를 심어준다.</p>
활동 사진	



★ 부서명 : 위생부서

1. 활동 명	손 소독제 만들기
준비물	알코올 베이스, 녹차 추출물, 복합 알로에 베라겔, 에센셜 오일 3종, 종이컵 1개, 스프레이 용기 6개, 나무 스페츨라 1개, 스티커
활동 소개	손 소독제를 직접 만들고 사용함으로써 청결에 대한 의식을 쌓아 준다. 감염과 질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세균에 대한 항균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재료로 선택했다.
활동 사진	
2. 활동 명	모기퇴치제 만들기
준비물	향수 베이스, 천연 에센셜 오일 3종, 스프레이 용기, 스티커
활동 소개	모기퇴치제를 직접 만들고 사용함으로써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질병인 말라리아, 라임병, 뎅기열, 웨스트나일 열병 등의 발병을 예방한다.
활동 사진	



★ 부서명 : 위생부서

3. 활동 명	생존 매듭 팔찌 만들기
준비물	매듭 줄, 버클
활동 소개	<p>생존 수영 매듭법이라고도 불린다. 물에 빠진 익수자를 직접 구조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생존 매듭법을 배우고, 부력 도구를 끈에 묶어 익수자에게 전달하여 타인을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다.</p>
활동 사진	 <p>The image consists of two parts. On the left, a group of people are seated around a table, actively engaged in making survival knots using pink and white string. On the right, a completed survival knot bracelet is shown, which is a circular loop made of pink and white braided string with a white buckle.</p>

★ 부서명 : 체육부서

1. 활동 명	림보
준비물	단체 줄넘기 줄
활동 소개	림보는 아이들이 단체 줄넘기를 하지 못할 때의 대체 프로그램이다. 줄넘기를 양쪽에서 일자로 잡은 후 아이들이 줄에 몸이 닿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는 놀이이며 줄에 몸이 닿으면 아웃된다.
활동 사진	
2. 활동 명	농구
준비물	농구공
활동 소개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멕시코 교회에서 진행하는 농구 톨을 선택했다.
활동 사진	

★ 부서명 : 체육부서



3. 활동 명	dotzibi 원반피구
준비물	dotzibi 원반, 접시 콘
활동 소개	<p>피구와 동일한 룰의 놀이로 공 대신 dotzibi 원반을 이용해 비교적 안전한 놀이다. 2개의 dotzibi 원반을 이용해 두 팀 중 한 팀이 모두 아웃 되면 경기가 끝난다.</p>
활동 사진	
4. 활동 명	노래 멈추면 모이기
준비물	스피커
활동 소개	<p>둥글게 원을 만들어 손을 잡고 돌다가 노래가 멈추면 진행자가 임의로 인원수를 말한다. 이때 호명한 인원만큼 모이지 못한 사람은 아웃 되는 놀이이다.</p>
활동 사진	

★ 부서명 : 체육부서

5. 활동 명	제주
준비물	바톤
활동 소개	농구장을 한 바퀴 돌고 다음 순서의 선수에게 바톤을 넘기는 릴레이 달리기 경기이다.
활동 사진	
6. 활동 명	꼬깔꼬깔
준비물	고깔모자, 접시콘
활동 소개	고깔 모자를 얼굴에 착용한 후 고깔 모자의 끝 꼭짓점에 보이는 구멍을 통해 바닥에 놓인 고깔을 빠르게 많이 줍는 팀이 승리한다.
활동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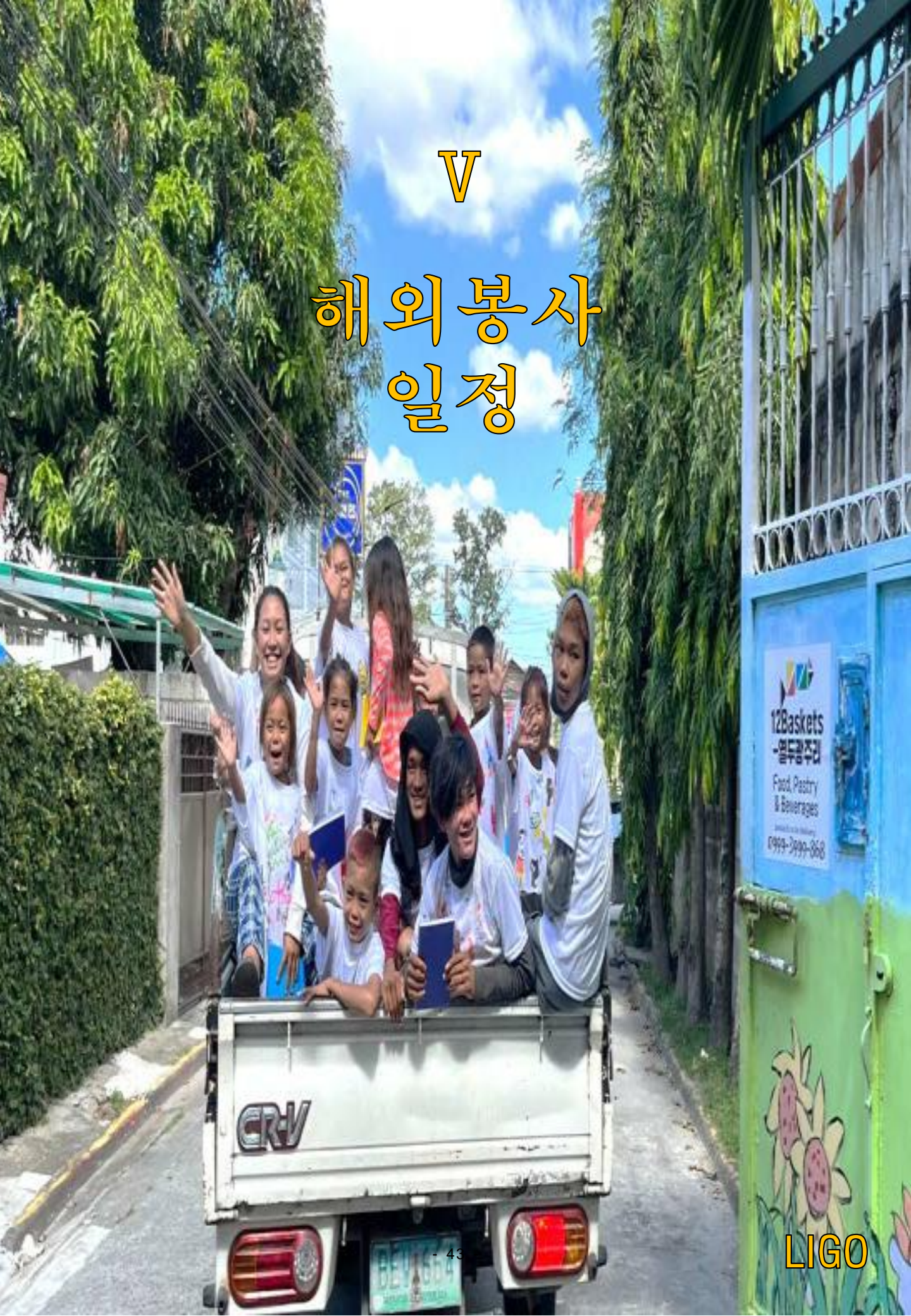
IV 프로그램 소개

★ 부서명 : 체육부서

7. 활동 명	탁구공, 농구공 릴레이
준비물	바톤
활동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탁구공 릴레이는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a4용지를 이용해 공을 옮겨 컵 안에 먼저 공을 넣는 팀이 승리하는 놀이이다. - 농구공 릴레이는 다리 사이로 공을 보내 맨 뒤에 있는 사람이 공을 받으면 다시 머리 위로 공을 전달해 맨 앞사람에게 가장 먼저 공이 도착한 팀이 승리하는 놀이이다.
활동 사진	
8. 활동 명	태권도
준비물	돛지비 원반(발차기 연습)
활동 소개	태권도 태극 1장 시범을 보이고, 아이들이 따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머리, 몸통, 아래 막기,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 지리기를 교육한다.
활동 사진	

V

해외봉사 일정



V 해외봉사 일정

1월 11일 ~ 1월 14일 일정

시간/요일	11월 수	12월 목 (센터)	13월 금 (교회)			시간/요일	14월 토 (교회)			
1교시 9:00 - 10:30			10:00 ~ 11:30	성인	위생부서	손소독제 만들기	1교시 9:00 - 10:30	초	생활부서	티셔츠
				백화	생활부서	백화 10-11명, 체육부서		중	교육부서	화산민들기
					위생부서			고,성인	위생부서	차역민들기
				식사당번	교육부서			체육부서		
2교시 10:30 - 12:00			11:45 ~ 13:00	백화	생활부서	백화 10-11명, 위생부서	2교시 10:30 - 12:00	초	교육부서	화산민들기
				성인	체육부서	발야구 (20)		중	위생부서	차역민들기
			식사당번	교육부서		고,성인	생활부서	티셔츠	체육부서	
			13-15 식사				대뉴	스팸다요달걀 13:00 - 15:00 식사	점심 12:00 - 13:30	참치마요덮밥
정심 12:00 - 13:30	오후	백화 환경정리 제언트 (오전/오 후)	15:00 ~ 16:30	초	교육부서	한복 만들기(30)	3교시 14:00 - 15:30	초	체육부서	수건돌리기 (30)
				중	체육부서	한국예능게임해우기 (20)		중	생활부서	티셔츠
				고	위생부서	손소독제 만들기		고	교육부서	화산민들기
				백화	생활부서	백화		성인	위생부서	
4교시 15:45 - 17:00			16:30 ~ 18:00	초	체육부서	한국예능게임해우기 (20)	4교시 15:45 - 17:00	초	교육부서	한글
				중	생활부서	비누만들기		중	위생부서	손소독제 만들기
			고	교육부서	자기소개, 단어, 병고	고	체육부서	한국예능게임해우기 (20)		
			백화	생활부서	백화, 위생부서	성인	생활부서			
저녁 및 하루 대감 회의			교육부서	김유정		저녁 및 하루 대감 회의				
			생활부서	최소연						
			위생부서	유아진						
			체육부서	이아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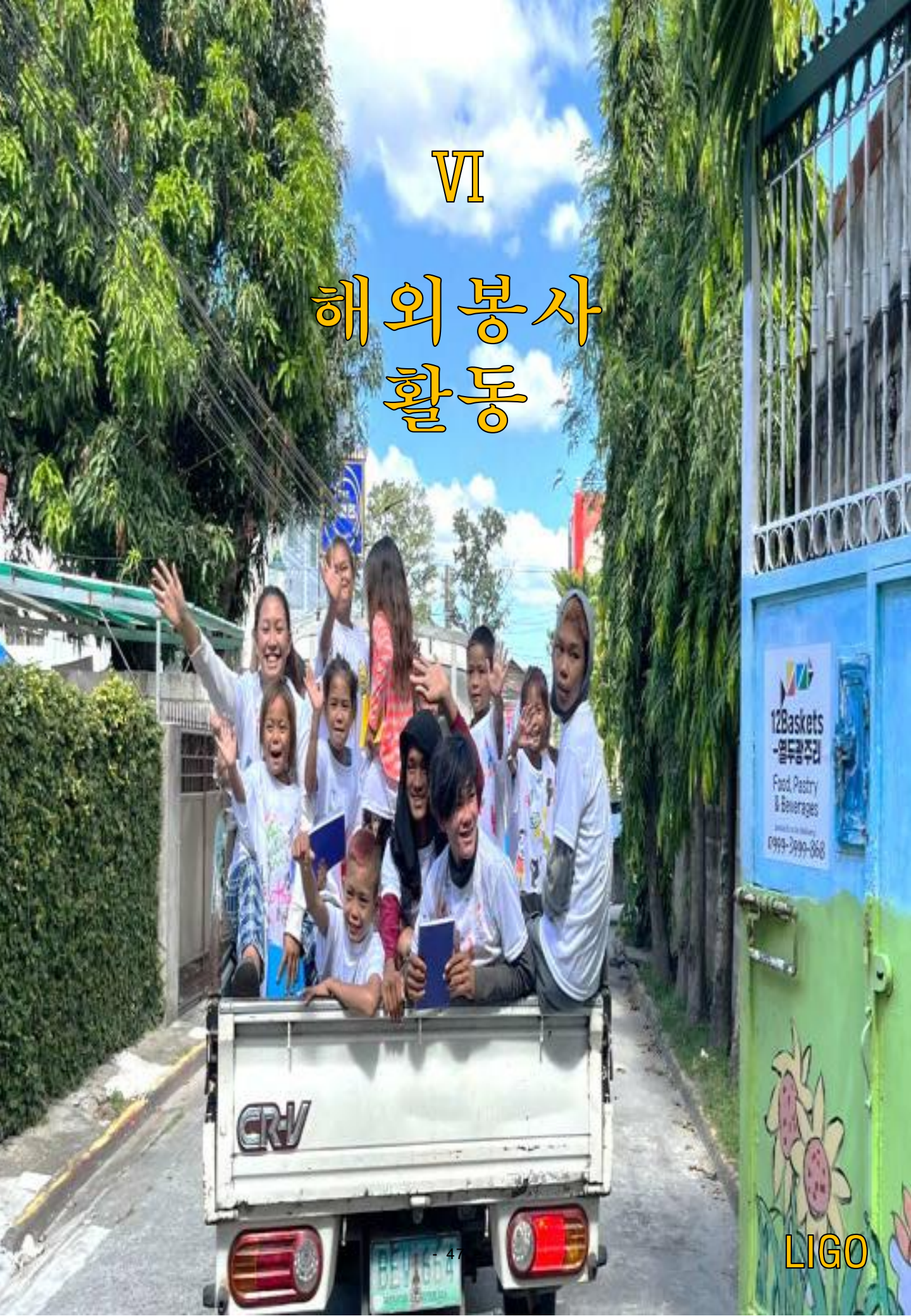
V 해외봉사 일정

1월 15일 ~ 1월 20일 일정

15일 월 (교회)	16일 월	17일 화	18일 수 (센터)			19일 목 (센터)			20일 금
예배	문화체험		초	교육부서	이공포 + 나라이름 (30)	초	교육부서	회신시험	정비(출발(공항))
		중	위생부서	생존해듬꿀찌 만들기	중				
		고	체육부서	한국예능게임배우기 (20)	고	생활부서	티셔츠		
		생활부서			위생부서				
		초	위생부서	치약만들기	초	생활부서	티셔츠		
		중	체육부서	한국예능게임배우기(20)	중				
		고	교육부서	자기소개 + 병고	고	교육부서	회신시험		
		생활부서			위생부서				
		긴장비방법			주의법				
		미니 체육대회 (100)			초	체육부서	한국예능게임배우기(30)	미니 체육대회 체육 부서가 주도 -> 다른 부서 참여필수(100)	
중	교육부서			한글					
고	생활부서			데코백만들기					
성인	위생부서			생존해듬꿀찌 만들기					
초	교육부서			한글					
중	생활부서			데코백만들기					
고	위생부서			생존해듬꿀찌 만들기					
성인	체육부서			한국예능게임배우기(20)					

VI

해외봉사 활동



VI 해외봉사 활동

1) 1월 10일 : 출국

- 14:00 인천 공항 도착
- 17:00 체크인 후 맛있는 저녁 식사
- 18:00 필리핀 출발



2) 1월 11일 : OT

- 멕시코 교회 탐방
- 맞자오 센터 탐방
- 전체 회의

멕시코 교회 탐방



맞자오 센터 탐방



2) 1월 11일 : OT

- 멕시코 교회 탐방
- 밋자오 센터 탐방
- 전체 회의

전체 회의






부서별 회의록

교회		교회		교회		교회	
부서	담당자	부서	담당자	부서	담당자	부서	담당자
총무부	김민정	총무부	김민정	총무부	김민정	총무부	김민정
인사부	김민정	인사부	김민정	인사부	김민정	인사부	김민정
교육부	김민정	교육부	김민정	교육부	김민정	교육부	김민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회의록	...	회의록	...	회의록	...	회의록	...
회의록	...	회의록	...	회의록	...	회의록	...

VI 해외봉사 활동





3) 1월 12일 : 멕시코 교회 벽화, 밧자오 센터 청소

- 멕시코 교회 벽화팀

참여자	강유정, 국중우, 박선영, 배진완, 송효우, 전은수, 최소연	
소요 시간	9:00 ~ 15:00 (6시간)	
활동 사진		
활동 소개	<p>1. 교회 페인트 - 마스킹 테이프 작업, 조색 작업, 도장 작업, 주변 정리</p> <p>2. 벽화 페인팅 도안 상의</p>	
부서 회의 사진		<p style="text-align: center;">부서 회의록 사진</p> 

3) 1월 12일 : 멕시코 교회 벽화, 밧자오 센터 청소




- 밧자오 센터 청소팀

참여자	권예은, 김세종, 김영빈, 김지연, 안희수, 유아진, 이승아, 이아름, 이용빈, 최선경, 황민선, 황예지		
소요 시간	9:00 ~ 15:00 (6시간)		
활동 사진			
활동 소개	<p>1. 오전 : 밧자오 센터 청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1조 구성하여 진행 - 아이들과 놀이 진행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둥글게 둥글게) <p>2. 오후 : 놀이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팀으로 분배 후 팀별 놀이 진행 - 1팀 : 림보, 둥글게 둥글게, 줄 뛰어넘기, 줄에 돌 던지기 - 2팀 : 림보, 둥글게 둥글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긴 줄넘기, 줄넘기 		
활동 사진		부서 회의록 사진	
			

VI 해외봉사 활동




4) 1월 13일 : 멕시코 교회 부서별 프로그램 진행

- 교육부서, 생활부서

참여자	강유정, 국중우, 권예은, 박선영, 배진완, 송효우, 안희수, 이승아, 전은수, 최소연	
소요 시간	10:00 ~ 17:30 (7시간 30분)	
활동 사진		
활동 소개	<p>교육부서 : 점심 준비, 화산 실험</p> <p>생활부서 : 벽화그리기</p>	
부서 회의록 사진		




5) 1월 14일 : 멕시코 교회 부서별 프로그램 진행

- 교육부서




참여자	강유정, 권예은, 안희수, 이승아, 전은수	
소요 시간	9:00 ~ 17:00 (8시간)	
활동 사진		
활동 소개	<p>1. 1,2교시 : 화산 실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팀으로 분배 - 실제 화산 폭발에 대한 원리를 설명 한 후, 식초와 베이킹 소다를 이용하여 재현. <p>2. 3교시: 이름표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그룹으로 진행 - 아이들의 이름을 한글로 써주면 색칠도구를 이용해 꾸민 뒤 착용하였고 단원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활동. 	
부서 회의 사진		<p style="text-align: center;">부서 회의록 사진</p> 

5) 1월 14일 : 멕시코 교회 부서별 프로그램 진행

- 생활부서




참여자	국중우, 박선영, 배진완, 송효우, 최소연	
소요 시간	9:00 ~ 17:00 (8시간)	
활동 사진		
활동 소개	<p>1. 1,2,3교시 : 티셔츠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 중, 고 성인 티셔츠 타이다이 - 흰 옷 물에 적시기 - 염료, 소금 물에 녹은 곳에 붓거나 담기 - 물기 짜주고 10분 대기 - 물에 씻기고 완성 <p>2. 4교시: 비누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말 섞어주기 ~주물러주기~ 뭉쳐서 모양 만들기 	
부서 회의 사진		부서 회의록 사진
		

5) 1월 14일 : 멕시코 교회 부서별 프로그램 진행 - 위생부서

참여자	김지연, 유아진, 최선경, 황민선, 황예지	
소요 시간	9:00 ~ 17:00 (8시간)	
활동 사진		
활동 소개	<p>1. 1교시 : 손 소독제 + 혈압, 키, 몸무게 측정 - 6인 1조로 구성 (총 30명) - 물품 배부 및 손 소독제 만들기 진행</p> <p>2. 2-3교시 : 모기퇴치제 + 혈압, 키, 몸무게 측정 - 물품배부 및 모기퇴치제 만들기 진행 - 모기퇴치제 공병 꾸미기 및 스티커 부착 - 혈압, 키 몸무게 측정</p> <p>3. 4교시 : 생존 매듭 팔찌 - 원형으로 인원 구성 (성인, 초등학생 총 30명) - 생존 매듭 팔찌 필요성, 방법 설명 & 팔찌 만들기 진행</p>	
부서 회의 사진		<p style="text-align: center;">부서 회의록 사진</p> 




5) 1월 14일 : 멕시코 교회 부서별 프로그램 진행

- 체육부서

참여자	김세중, 김영빈, 이아름, 이용빈	
소요 시간	9:00 ~ 17:00 (8시간)	
활동 사진		
활동 소개	<p>1. 1,2교시 : 태권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권도의 기본 동작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직접 배울 수 있는 활동을 진행. - 발차기, 막기 : 태극 1장을 배우기 힘든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차기, 막기, 지르기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진행. - 돛지비 원반피구 : 피구와 비슷한 종목인 돛지비 원반을 이용한 피구를 진행. <p>2. 3교시: 농구공릴레이 프로그램, 둥글게 둥글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를 틀어주고 노래가 멈추면 진행자에 따라 3명, 4명 등으로 모이는 게임을 진행. 	
부서 회의 사진	부서 회의록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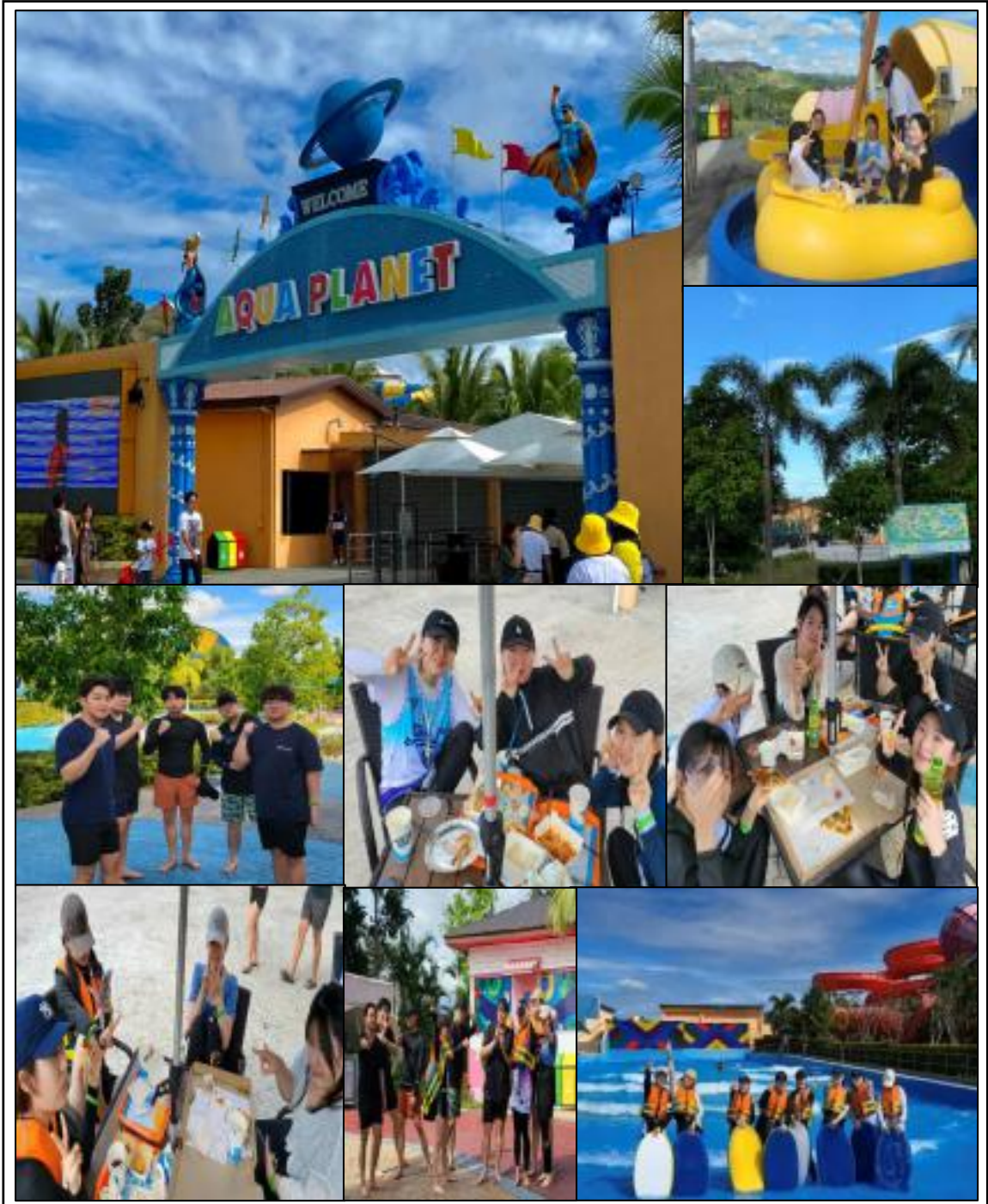
6) 1월 15일 : 체육대회

- 멕시코 교회 체육대회 진행

참여자	이아름, 이용빈, 김영빈, 김세중, 황민선, 최선경, 김지연, 유아진, 황예지, 안희수, 권예은, 이승아, 강유정, 전은수, 국중우, 배진완, 박선영, 최소연, 송효우	
소요 시간	9:00 ~ 17:00	
단체 사진		
프로그램 설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돛지비 원반피구 2. 등글게 등글게 3. 계주 4. 농구공 릴레이 5. 농구 6.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활동 사진		부서 회의록 사진
		

7) 1월 16일 : 문화체험

- AQUA PLANET



8) 1월 17일 : 문화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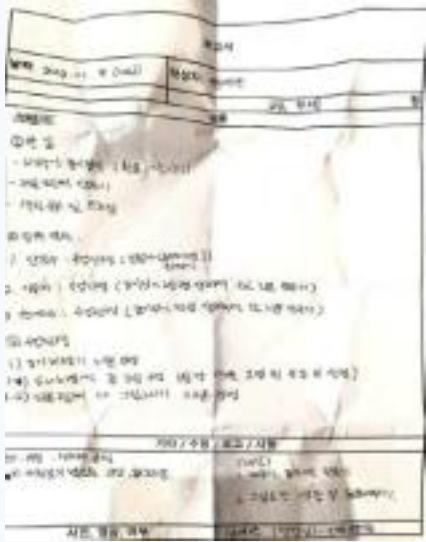
- BAGAC: SNORKELING



VI 해외봉사 활동

9) 1월 18일 : 빛자오 센터 부서별 프로그램 진행




- 교육부서

참여자	권예은, 안희수, 이승아, 전은수	
소요 시간	9:00 ~ 17:00 (8시간)	
활동 사진		
활동 소개	<p>프로그램 변경으로 비행기 접기를 준비함. 총 3번 수업을 진행함. 종이는 한복접기 키트를 활용하였음. 한국의 미를 보여주는 종으로 비행기를 접어 날리는 수업을 진행함. 수업 교실에 앉을 곳이 없어 바닥에 종이를 깔고 편안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음. 아이들은 신발을 벗고 올라와서 종이 비행기 만들기 수업을 들었음. 색종이를 처음 접어보는 아이들에게 친철히 설명하며 비행기를 접게 하였음. 다 접은 후 1조에 5명의 인원으로 비행기 날리는 시간을 갖음.</p>	
부서 회의 사진		<p style="text-align: center;">부서 회의록 사진</p> 




VI 해외봉사 활동

9) 1월 18일 : 밋자오 센터 부서별 프로그램 진행

- 생활부서

참여자	국중우, 박선영, 배진완, 송효우, 최소연	
소요 시간	9:00 ~ 17:00 (8시간)	
활동 사진		
활동 소개	밋자오 점심 준비 : 카레 만들기 진행	
부서 회의 사진		<p data-bbox="739 1597 819 1728">부서 회의록 사진</p> 




9) 1월 18일 : 밤자오 센터 부서별 프로그램 진행 - 위생부서

참여자	김지연, 유아진, 최선경, 황민선, 황예지	
소요 시간	9:00 ~ 17:00 (8시간)	
활동 사진		
활동 소개	<p>1교시 : 생존 매듭 팔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존 매듭 팔찌 필요성, 방법 설명 - 팔찌 만들기 진행 <p>2,3교시 : 손 소독제 & 모기퇴치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배부 및 만들기 진행 - 공병 꾸미기 <p>4교시 : 의료 봉사</p>	
부서 회의 사진		<p style="text-align: center;">부서 회의록 사진</p> 

VI 해외봉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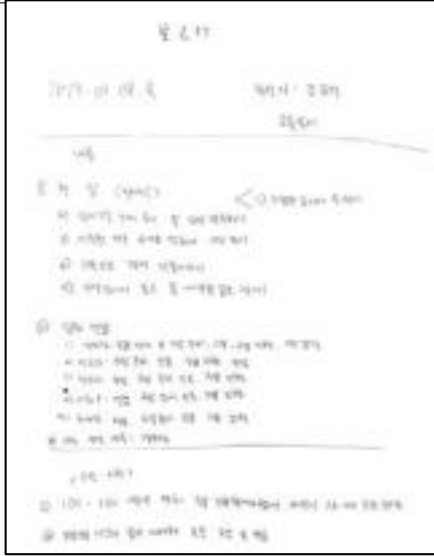
9) 1월 18일 : 밤자오 센터 부서별 프로그램 진행

- 체육부서

참여자	김세중, 김영빈, 이아름, 이용빈		
소요 시간	9:00 ~ 17:00 (8시간)		
활동 사진			
활동 소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꼬깔쓰고 접시콘 찾기 2. 꼬깔모자 블링 3. 농구공릴레이 프로그램 4. 림보 		
부서 회의 사진		부서 회의록 사진	




10) 1월 19일 : 빛자오 센터 부서별 프로그램 진행

- 교육부서

참여자	강유정, 권예은, 안희수, 이승아, 전은수	
소요 시간	9:00 ~ 17:00 (8시간)	
활동 사진		
활동 소개	<p>1. 상어가족 색칠놀이</p> <p>6명으로 나뉘어 한 조가 되어 6조각으로 나뉜 상어가족을 색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함.</p> <p>다양한 색과 종류의 색칠도구를 제공해서 아이들이 부족함 없는 색칠놀이를 할 수 있게 함.</p> <p>아기상어 노래를 틀어놓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색칠놀이를 마쳤고 마지막으로 한 조가 칠한 6조각의 상어가족을 합쳐서 철판에 붙이고 조끼리 단체 사진을 찍음.</p>	
부서 회의 사진		<p style="text-align: center;">부서 회의록 사진</p> 




VI 해외봉사 활동

10) 1월 19일 : 빛자오 센터 부서별 프로그램 진행 - 생활부서

참여자	국중우, 박선영, 배진완, 송효우, 최소연	
소요 시간	9:00 ~ 17:00 (8시간)	
활동 사진		
활동 소개	1. 티셔츠 꾸미기 진행함.	
부서 회의 사진		<p data-bbox="735 1591 821 1725">부서 회의록 사진</p> 




VI 해외봉사 활동

10) 1월 19일 : 빛자오 센터 부서별 프로그램 진행 - 위생부서

참여자	김지연, 유아진, 최선경, 황민선, 황예지	
소요 시간	9:00 ~ 17:00 (8시간)	
활동 사진		
활동 소개	<p>1-2교시 : 점심 만들기 변동사항 : 빛자오 아이들이 김치를 못 먹어서 참치 김치 주먹밥 > 야채 참치 볶음밥으로 변경 - 재료 확인, 역할분담, 재료 손질 및 조리, 배식, 뒷정리</p>	
부서 회의 사진		<p>부서 회의록 사진</p> 

VI 해외봉사 활동

10) 1월 19일 : 밋자오 센터 부서별 프로그램 진행 - 체육부서

참여자	김세중, 김영빈, 이아름, 이용빈	
소요 시간	9:00 ~ 17:00 (8시간)	
활동 사진		
활동 소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영장 놀이 2. 농구 진행함. 	
부서 회의 사진		<p style="text-align: center;">부서 회의록 사진</p> 

VI 해외봉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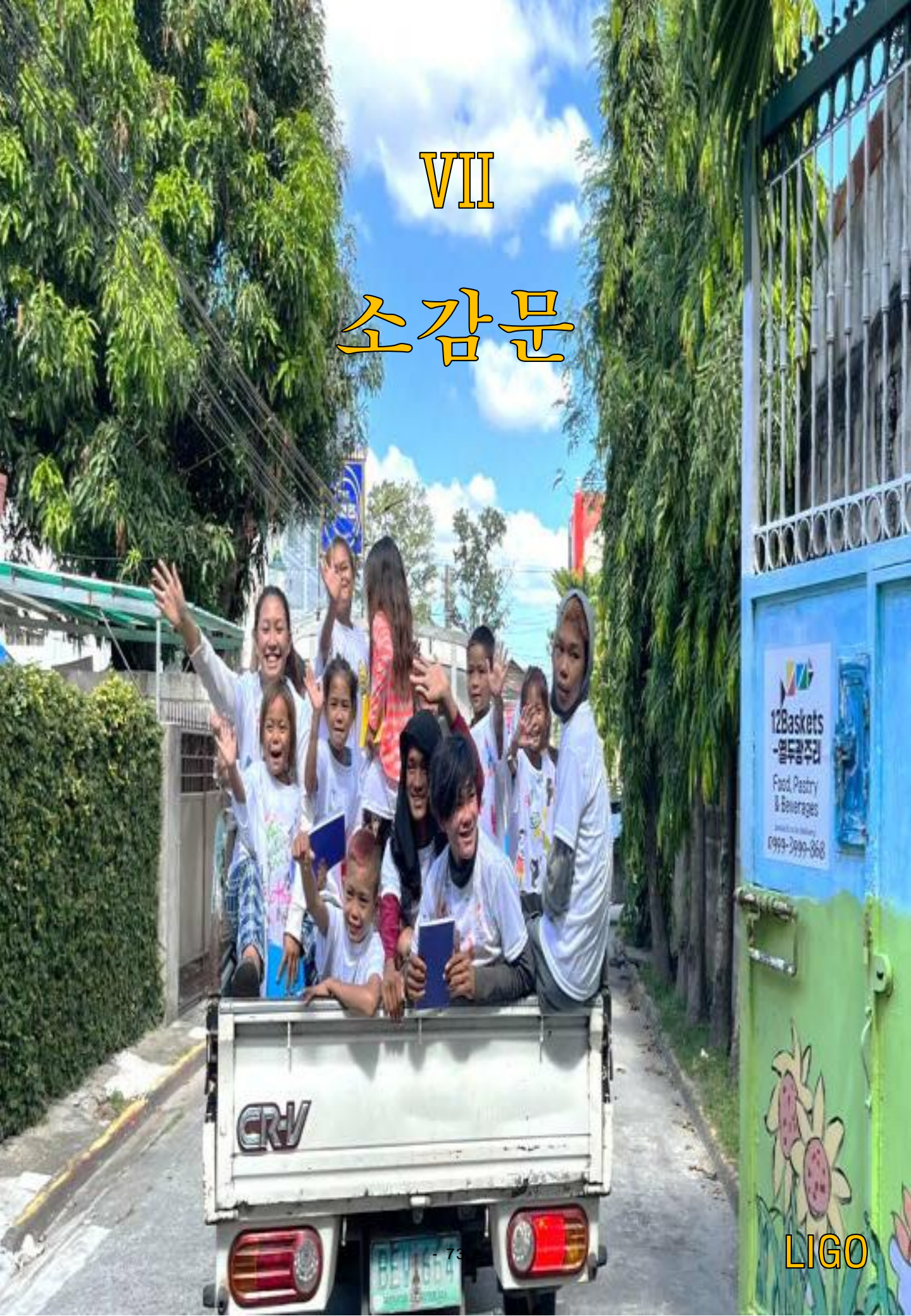
11) 1월 20일 : 입국

- 13:00 SM몰
- 18:00 숙소 짐 정리
- 23:00 한국 출발



VII

소감문



VII 단장님 한 말씀



멕시코 교회와 밧자오 지역을 다녀오며..

이번 동계 해외봉사를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많았던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해이다. 그 덕분에 아마 평생 이번 봉사활동은 나의 기억에 아주 또렷이 기억될 것이다.

두 번의 현지답사를 통해 우리 단원들의 숙소를 확정하고, 봉사 처를 몇 군데 살펴보고 현지의 봉사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보고, 활동지를 확인하고, 식사와 교통편 확인하고, 일정을 정하고 귀국했지만, 결국 많은 부분이 변경되고 현지에서 준비하기로 한 것들이 약간씩 부족해지면서 우리 단원들의 수고와 번거로움이 증가하게 되었다. 현지의 상황에 맞춰 프로그램 진행을 독려하고, 조언만 하면서 모든 것을 단원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하였고, 결과적으로 우리 단원들이 훌륭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었고, 마무리 까지 잘 해주어서 내 마음 한곳에 뿌듯함이...

밧자오 지역을 다녀오고 단원들이 받은 충격과 두려움. 상대적으로 멕시코 교회의 환경과 봉사대상자들이 비교 되면서 밧자오 지역의 봉사가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결국 우리 단원들이 밧자오 지역 대상자들과의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봉사대상자들에게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 나는 판단한다. 그들이 처음으로 직접 만나보는 한국 대학생. 그 학생들이 자기마을로 들어와 거리를 청소하고, 아이들과 본인들을 위해 음식을 나눠주고 같이 운동하고, 신기한 것들을 만들어주고, 치료해주고 약을 주는 이러한 일들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충격일 수도 있다. 이 결과가 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고 난 확신을 가진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단원들의 생각과 판단 결정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감사한다. 더운 날씨 속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픈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그들의 몫까지 다른 단원들이 조금씩 더 감당해주었고 프로그램 문제없이 마칠 수 있었다. 특히 몇몇 단원들에게는 특별히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본인들도 남들처럼 쉬고 싶고 본인 일만 하면 덜 힘들었을 텐데 힘들고 복잡한 일까지 맡고 묵묵히 해준 몇몇 단원들 정말 고마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같이 해봉 감사다. 여러분들의 지원 기다릴게요...!!

★ 강유정

해외봉사에 너무 참여하고 싶었지만, 4학년이라는 벽과 1월에 있는 중요한 시험 그리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해외봉사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찰나, 주변의 응원도 받았고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해외봉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출국 전에 해외봉사 모임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추억이 될, 도움이 될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였고 모든 연령대가 좋아할 것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모의실험도 해보고 준비물도 구해보며 난항도 겪었지만, 준비가 끝난 후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고 1월 10일에 출국을 하게 되었고 필리핀 숙소로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생각보다 괜찮은데?’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필리핀을 경험해보며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숙소에서 나오는 찬물, 계속 말하는 매년, 쉽 없이 돌아가는 일정 등 몸이 조금씩 안 좋아지는 걸 느끼며 생각보다 괜찮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현지인들을 만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내 몸보다 이들의 경험이 먼저이고, 이들의 즐거움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임하다 보니 어느새 저 또한 부수적인 것이 아닌 현재에 집중하며 즐겁게 현지인들과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아이들이 더 쉽게 따라 하고 배울 수 있는 재밌는 활동이 무엇인지 교육부서 단원들과 함께 고민해보았습니다. 고민의 결과, 원래의 물품을 사용하되, 더 쉽게 진행해보는 것이었고 프로그램 진행을 하며 소통은 안 되어도 잘 따라와 주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해외봉사 선택에 있어 왜 고민했나 싶을 정도로 뜻깊고 배운 게 많은 해외봉사였습니다.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단장님과 단원들에게 감사합니다!

★ 권예은

이번에 필리핀 해외봉사 11박 12일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저는 교육부서에 속해 있었고, 교회와 바짜우 아이들에게 한국의 전통의상 한복을 소개하였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온 저희들의 문화를 아이들은 기쁘게 환영해주었습니다. 저희를 낯선 이방인이 아닌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받아준 그들의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봉사를 통해 저는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에 가기 전에 꼼꼼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준비를 했지만, 하루하루 계획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다양한 대처 상황이 필요했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보며 배우거나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들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봉사는 나를 더욱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복된 것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교육부서 팀에서는 점심으로 스펀마요덮밥을 준비했었습니다. 처음 먹는 어찌면 생소한 음식을 환영해주었고,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요리를 준비할 때 덥고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해야 해서 힘들기도 했지만, 이들이 다시 줄을 서서 더 먹거나 맛있다고 칭찬을 해주었을 때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12일에 기간동안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짜우 마을로 들어가 청소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탐방을 갔을 때, 이러한 곳이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더욱 열심히 돕고 싶었습니다. 거리 청소를 하는 날, 날씨는 덥고 쓰레기는 계속 차니 무거워 지지만 마음만은 행복했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쓰레기를 줍고 있을 때, 그 마을 아이들이 함께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고사리 손으로 쓰레기를 주워주는 아이들의 착한 마음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봉사는 제가 가서 이들을 섬긴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함께 하며 저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해외봉사의 기회가 온다면 꼭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서지만 다른 팀들을 도와야하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고, 그 외에 행정일도 같이 하다보니 같이 간 친구들과 섞이면서 다양하게 그룹을 형성해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 낯선 환경에서 가끔은 부딪힐 때도 있지만 대화를 통해 풀어가며 협력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평택대학교에서 진행한 필리핀 해외봉사를 참여 한 것이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안희수

안녕하세요? 필리핀 LIGO 봉사에 참여하게 된 안희수입니다! 처음에 해외봉사 단원을 모집한다는 말에 “에이 설마 4학년을 뽑아주겠어?” 하는 마음으로 지원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단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매주 화요일마다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발표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저는 부팀장에서 팀장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봉사 시간표를 짜고 출국 전, 회의를 기획 및 총괄하며, 단장님과 단원 사이에서 다양한 것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봉사에서 어느 누구 하나 쉬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고, 프로그램 기획에 최선을 다하는 단원들을 보며 저 역시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타국의 낯선 환경 속에서 돕겠다는 선한 마음들이 모여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하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추운 한국과 다르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약간 쌀쌀한 필리핀에서 차가운 물로 샤워하는 단원들은 감기에 많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아파도 7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챙겨 먹고, 봉사를 위해 꼭 참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팀장으로써 제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단원들은 아팠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교육부서, 체육부서, 생활부서, 간호부서에 맞게 프로그램을 이어 했고, 저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시간을 조율하고 최대한의 효율을 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에게 멕시코 교회에서의 첫 날이 가장 인상 깊은 날이었습니다. 멕시코 교회에서의 첫 날은 교육 부서가 밥을 만드는 날이었습니다. 당일에 당첨되지 않아 편하게 자고 있었는데, 당일 아침에 갑자기 작은 소리로 “희수 언니, 큰일났어요.” 라는 말에 마치 좀비처럼 눈이 번쩍 떠지면서 일어났습니다. 작은 사건의 전말은 일찍 일어나서 나가야 한다는 소식이었고, 저는 자고 있던 단원들의 모든 방을 두드리며 깨웠습니다. 마치 저는 군대 조교인 줄 알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상에 단원들은 당황했고, 저도 당황했습니다. 현지 담당자와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해프닝으로 다음부터 꼭 담당자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는 화산 실험을 하기 위해 교회에서 필리핀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생각한 만큼 오지 않아 당황했었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우왕좌왕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기다리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고 교육 봉사를 시작해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단원들에게 시작하자고 했고, 모두가 최선을 다해 봉사에 임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적응도 안되고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단순하게 “피웅~, 쉼~, 어어?” 감탄사만 연발하면서 아이들과 웃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낯을 가려 하다가 나중에 손을 잡고, 자기가 만든 것을 보라고 하고, 이름을 물어보는 등 아이들의 순수함을 보았습니다. 유성 사인펜으로 팔에 이름을 적어 달라는 아이들의 요구에 처음엔 당황했지만,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아 보드라운 팔에 작게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저는 봉사를 통해 단원들의 열정과 성실함을 배웠고, 필리핀 아이들의 순수함을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 속에서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모두가 대단했고, 멋졌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사건 사고가 많았던 우당탕탕한 팀장이었고, 봉사가 잘 마무리돼서 안도했습니다. 저는 너무 뜻깊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 이승아

저에게 해외봉사는 살면서 처음으로 도전해 보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과는 또 다른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을 도우며 다양한 상황과 예기치 못한 일들을 직접 겪음으로써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알고, 현실적인 지원 방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날짜가 겹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포기해야 했지만 정말 후회 없고 앞으로의 인생에서 손꼽을 만큼 기억에 남는 날들이었습니다. 봉사를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열악한 환경 탓에 준비한 프로그램을 전부 다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위안을 받았습니다. 아이들과 헤어지는 날에는 더 잘해주지 못한 아쉬움과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슬픔 감정도 들었습니다. 스노클링, 워터파크 등 문화체험도 기억에 남는데 특히 스노클링은 처음 해 보는 것이라 많이 무서웠지만 단원들과 함께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필리핀 해외봉사는 저에게 많은 변화를 준 활동이었습니다. 함께 협동하는 능력,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단원들을 보며 저에게 부족한 기술들을 채워나가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가고 싶은 해외봉사였습니다. 좋은 추억 만들어준 단장님, 단원들 감사합니다!

VII 단원 소감문

★ 전은수

이번 동계 해외봉사는 제 두 번째 해외봉사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번 필리핀으로 해외봉사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이번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 봉사 때와는 다르게 호텔에서 자지도, 좋은 음식을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제가 봉사를 하러 왔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임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현지인 통역사들과 모든 일정을 함께했는데 그들은 우리의 통역만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필리핀의 문화를 많이 알려주고 경험하게 해줬습니다.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올 쯤에는 통역사와 봉사자가 아닌 친구가 되어있었습니다. 여전히 한국에 와서도 연락을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봉사를 가기 전보다 오히려 다녀온 후에 필리핀과 바자우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찾아보았는데 뭔가 반갑고 짠했습니다. 아직도 쓰레기를 밟으며 놀던 아이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동정 어린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해맑게 좋아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열악하고 위생적이지 않은 공간이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행복해하는 바자우족에게 오히려 배우고 온 거 같기도 합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와 함께 만들었던 티셔츠들, 그리고 남기고 간 선물들을 잘 간직하며 우리를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국중우

저는 이전에 해외 봉사도 아닌 국내 봉사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봉사활동에 뒤늦게 참여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봉사정신보다는 해외로 나간다는 설렘을 먼저 가졌던 거 같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생각보다 봉사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고, 팀원들과 함께 춤과 각종 프로그램 계획 등 여러 준비를 하면서 일에 대한 책임감도 갖게 되었고 잘 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필리핀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 도착하여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될 여러 지역을 탐방하고, 우리가 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통역사 친구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며 금방 한마음이 될 수 있었고 한국에서 준비한 많은 프로그램을 그 지역 아이들에게 알려주며 금세 서로에게 많은 정이 들어 마지막 돌아올 때에는 아쉬움마저 들었던 거 같습니다. 그곳에서 본 아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좋아하며 잘 따라주어 그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마음을 들게 해주었고 저 또한 나라는 한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싶었지만, 내가 가진 소소한 능력들도 그곳에서는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에 저 또한 자부심과 행복감을 느꼈던 봉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졸업을 하여 학교를 떠나지만 후배들에게 봉사를 추천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단연코 가라라고 말해주고 싶고 그곳에서 느낀 여러 성취감을 수고해 준 단원 모두가 오래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 박선영

봉사활동은 함께 나아가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까지 해왔던 봉사활동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사실과 봉사를 하면서 저 혼자라면 하지 못했을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여 노력의 결실을 맺는다는 경험이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협력하여 함께하는 활동을 해외에 나가서도 팀원들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줌으로써 함께 하는 힘을 경험하고 배우고 싶어 이번 필리핀 해외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여행을 목적으로만 필리핀에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관광지들이 많이 몰려있는 도심이 아닌 현지인들이 사는 작은 동네 앙헬레스에 도착했을 때 매우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겨울인 한국과 다르게 따뜻하고 맑은 날씨와 눈앞에 펼쳐진 자연을 보며 그곳이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필리핀 앙헬레스 안에 있는 마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과 빈민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벽화 그리기와 티셔츠 염색과 같이 여러 교육, 문화, 체험 봉사를 제공하였습니다. 도착할 때마다 모두가 환한 미소로 반겨주셨던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봉사 중 특히 아이들에게 더 눈길이 갔었는데 마지막 날 그들이 언제 다시 올 건지 물어보며 저희가 그리울 것 같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며 아이들이 많이 재밌었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함께 더 오래 있어주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저는 특히 교회에 벽화를 그리는 봉사가 가장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일 보람찼던 경험이었습니다. 교회에 칩칙했던 벽면을 페인트칠하고, 팀원들과 회의를 통해 예쁜 그림들로 채워나가면서 완성된 모습을 보고 뿌듯했습니다. 채워나가는 그림들로 교회가 점점 더 생기 돌아나는 모습을 보며 팀원들과 함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기에 더 보람차고 가치 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필리핀 해외봉사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고 보았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제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지내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유익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완성이 되고 잘 마무리하며 제 자신감과 성취감 또한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해외봉사에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

★ 배진완

대학교 4학년 겨울방학 졸업을 앞두고 해외 봉사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으로 해외에 나간다는 생각에 무섭고 설레었습니다. 여러 활동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여행이 아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게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 도착한 후 열악한 환경 속 바자우족 사람들을 보고 난 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과연 내가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며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안 좋은 위생 때문에 다가가는 것조차도 꺼려졌습니다. 그래도 현지 아이들과 친해지고 나니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래도 필리핀 교회 사람들은 그래도 바자우족보다 위생적인 부분이 나 삶의 수준이 나아서 봉사하기 훨씬 수월했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접해본 친구들도 많아서 친해지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두 그룹 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봉사를 시작하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기획했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을 만큼 열악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부족했고, 필요한 물건이 없는 등 예기치 못한 변수에 맞서 유동적으로 계획들을 수정했습니다. 또 나를 포함해 아픈 봉사단원도 생겨났습니다. 약을 먹으며 아픈 몸 이끌고 봉사하는 우리 단원들이 안쓰럽고 대견했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역경을 헤치고 모든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일을 마무리한 것은 필리핀 통역사 친구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중간에서 영어를 필리핀어로 통역해주며 우리의 일을 자기 일처럼 도와주어 정말 고마웠습니다. 내가 영어를 잘했다면 더 원활한 소통이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라도 영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 봉사단원의 삶은 군대 같았습니다.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 숙소와 투박한 나무 침대 위에 딱딱한 매트리스, 트럭 뒤에 실려 일하러 가는 환경들이 아쉬웠지만 힘들었던 만큼 좋은 기억들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했던 봉사들이 그 사람들의 삶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필리핀에서 현지인들과 어울려 생활하며 봉사하는 값진 추억과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송효우

졸업을 앞두고 우연히 학교에서 해외 봉사 인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았고,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서 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치의 고민도 없이 봉사에 지원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을 가기 앞서서 내가 스스로에게 했던 목표는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 심어주기” 였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모두 모여서 단합력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12일간의 봉사를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앙할레스에 도착하고 필리핀 음식을 접하고 밋자오 친구들을 보고 나서 여기서의 봉사는 무조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고 앞으로의 생활이 겁이 났습니다. 필리핀 앙할레스는 생각보다 온화하고 정겨운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한국과 다른 문화가 생소하여 많이 놀라웠습니다, 멕시코 교회를 봉사하고 밋자오 친구들을 만나고 어려운 의사소통 속에서도 정겨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과 다른 것 없이 순수하고 이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아이들과는 다르게 사람에게 서스럼없이 다가가는 모습이 몽클하기도 했습니다. 밋자오 아이들을 만났을 때, 바닥에는 수많은 쓰레기가 있었고 옷 하나 걸치지 못한 아이들도 많고 신발을 신지 못하는 아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그들만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바라보려 했습니다. 아이들은 싸우면서 서로의 것을 빼는 것을 계속해서 목격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질서와 규율이 없는 이 마을이 마음 아팠습니다. 해외 봉사를 처음에 지원했을 때, 우습게 여겼던 스스로 한편으로 부끄러우면서도 큰 반성이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좋은 추억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에서는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고 아이들에게 배움을 주었지만 아이들뿐만 아닌 저도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얻어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필리핀에서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문화를 직접 겪으면서 인간관계 면에서 친화력을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평소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 것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아이들의 순수함으로 사랑을 느끼고 k-pop, k-drama 등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저에게 이번 봉사는 많은 터닝 포인트를 가져다주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진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었고, 탄력을 얻어 열심히 공부하고 주저하지 않는 망설임으로 앞으로 도 도전해 나갈 생각입니다, 필리핀에서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더라면 같이 봉사했던 친구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었다라면 더 큰 지혜를 얻어 갈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아쉽기도 합니다.

이번에 필리핀 해외봉사를 처음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년동안의 비대면을 경험하고 1년정도의 대면을 하다가 선후배와도 어색한 사이로 지내던 와중 해외봉사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해외봉사를 다녀온 친구가 몇몇 있긴 했었는데 자세히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봉사를 하고 오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하나도 몰랐었는데 그런 일들이 궁금하기도 했고 3학년을 이렇게 허투로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 해외봉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총 10박 11일의 일정을 소화하기에 앞서 모임을 여러 번 가지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담당할 건지에 발표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 중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 두개가 발탁되어 직접 진행하게 된 게 너무 뿌듯했습니다! 벽화 그리기와 비누만들기를 그 많은 프로그램중 이 두개를 맡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준비물도 많이 필요하여 역시 뭐든 다 쉬운 건 아니구나 느끼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필리핀을 가보게 됐는데 도착하자마자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저희를 반겨주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방도 어디로 가야할지 설레하는 모습에 얼른 짐풀고 싶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이끌고 숙소로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더 넓고 좋은 숙소였어서 그리고 많은 친구들과 자게 된 방으로 정해졌어서 10박동안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박 중 휴가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봉사를 하였는데, 한국의 겨울 날씨를 벗어나 필리핀의 여름날씨에 봉사하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요리를 하는 봉사단원들도 많았고 벽화를 그리고, 교회 친구들을 놀아주기에 날씨가 가장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정이 오래 힘들더라도 그만큼 그 하루에 찍고 남긴 사진들을 숙소에 돌아와 살펴볼 때면 재밌고 보람찬 하루를 보냈다고 뿌듯해 하였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고를 반복하여 새로운 날들이 항상 밝았습니다. 별레도 많고 낮선 타지에 적응하기 어려울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봉사단원들도 빠르게 적응하게 되었고 새로운 문화, 언어들에 점점 익숙해 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놀고 밥을 먹고를 반복하고 나니 이별의 시간이 다가올 때면 아쉽기도 했습니다. 정이 많은 어린 친구들과 이별을 하는 날에는 마음이 정말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다음에 또 오고 싶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밤자오 봉사를 자주 가진 않았지만 필리핀에도 빈부격차는 존재하는구나.. 이런 환경속에서도 웃고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앞으로 하나하나 환경도 잘 지키고 봉사의 중요성도 조금씩 깨닫고 가기도 했습니다. 휴가시간때는 이미 봉사단원들이랑 조금씩은 친해진 단계여서 그런지 더욱 더 재밌고 신나게 놀고 왔던 것 같습니다!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봉사하며 친해진 시간들이 허투루 되지 않고 해단식때 다같이 모여서 더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겐 이번 해외봉사가 첫 해외이자 첫 해외봉사이기도 하였는데,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직접 나서고 다른 언어도 쓰면서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도 너가 가라 안간다 이렇게 미루지 않으며 다같이 도와주는 봉사가 무엇인지 알게 됨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봉사가 올라오게 된다면 꼭 신청하여 이번보다 더 경험이 많은 선배로서 봉사단 리고를 같이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다같이 다녀온 해외봉사단원분들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단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걸 깨닫고 교훈도 얻게 되는 뜻깊은 해외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지연

대학교 입학하면 꼭 해외봉사를 가고 싶었습니다. 이번 봉사에 같은 학과 동기들과 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전 지식 없이 필리핀에 도착하여 교회탐방과 센터를 방문하였는데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환경도 열악하고 의식주의 문제가 심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다들 제 이름인 로사를 바로 불러주며 저에게 따뜻하게 다가와 주었습니다. 저는 소아과에서 일하는 걸 꿈꾸며 간호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함이 너무 좋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눈을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필리핀 낮자오 아이들은 저에게 인생의 의미와 긍정의 힘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저의 편견이 부끄러웠고, 앞으로 인생의 방향성과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았습니다. 필리핀에는 의료 보험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적용이 힘들어 병원에 가기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소독이라도 내가 최대한 해주자라는 생각으로 한 명씩 몰래 데려가 소독과 상처 보호를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낯선 사람이 와서 자기를 해친다는 생각으로 저를 거부했지만 통역사분들의 도움과 제가 웃으면서 저 먼저 소독하는 걸 보여주니 다들 바로 저를 믿고 상처를 보여줘서 고맙웠습니다. 힘들었지만 동기들과 같이 간 단원들과 좋은 추억도 많이 쌓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어에 자신이 없었는데 현지인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소통이 되어 영어에 자신감도 생겼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간호사가 되어서 제대로 된 의료봉사를 떠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수고했고 감사했습니다.

★ 유아진

봉사 모임을 처음 가졌을 때 위생부서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손소독제, 위생팔찌, 모기퇴치제가 필리핀 아이들, 어른분들께 유용할지도 수많은 고민을 했고 이 외에도 무엇이든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기부 의약품을 기획하면서 이렇게 많은 의약품이면 충분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봉사를 가니 다치고 아픈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획한 기부 물품을 초과하여 필요로 하기도 했습니다. 겐타마이신 연고를 많이 다치는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었고 예상외로 많은 인원에게 미안하게도 나머지 아이들은 해열진통제시럽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에 다행감과 더 도움이 되지 못하는 미안함의 감정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의료봉사도 해야 한다고 하였을 때 막막하고 감이 안잡혔으나 한 번 하고나니 아이들을 증상별로 나눠 치료를 진행하였더니 빠르게 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상태는 대부분이 이미 증상이 악화되어 있어 고름이 저 파리가 주변에 날라다니는 단계였습니다. 치료해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무렇지 않고 해맑은 아이들을 보니 더 속이 상했습니다. 봉사를 할 때 발목을 다쳐 인근 필리핀대학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생각지 못한 약값과 의료비용에 놀랐지만 한국인이어서 보험이 되어 무료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국민의료보험체계에 필리핀 아이들이 떠올랐고 사회보험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빈약한 국민에게도 치료기회를 주었으면 했습니다. 이 외에도 현지문화체험을 통해 노래를 좋아하는 문화와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현지인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지분들 모두 정이 많고 애정이 넘쳐 즐거운 봉사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처음왔을 때부터 끝까지 환호해주고 좋아해주어서 봉사의 뿌듯함을 느끼고 어느 나라든 아이들의 해맑음을 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4학년 2학기에도 동계해외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면 다시 하고 싶을 만큼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최선경

오래전부터 이루고 싶었던 목표 중의 하나인 해외 봉사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이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잘할 수 있을까? 제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앞섰지만,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을 펼쳐보겠다는 다짐으로 해외 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둘째 날에 처음 마주한 ‘바자오’ 라는 곳은 지금까지 처음 본 가장 열악한 환경이었고 처음 마주하였을 때는 거부감도 들고 ‘여기서 내가 봉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불평과 걱정이 앞섰지만 “예쁘다” 라는 말을 건네주며 반가운 인사로 다가오는 아이들을 보니 어느 순간 그들에게 저도 마음을 열고 있음을 알게 되었던. 이런 열악한 환경이지만 누구보다도 밝은 모습을 띠며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보면서 “나도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을 더 기부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보며 자기들도 함께 참여하겠다고 작은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넣을 때마다 바자오를 처음 보았을 때 저의 불평과 걱정을 되돌아보았고 더 열심히 아이들과 게임을 하고 사진 찍으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의료봉사를 하면서 아픈 곳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더 악화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파 더 열심히 아이들 한 명 한 명 치료해 주고 나서서 약도 직접 먹여주었습니다. 비록 많이 부족하고 미숙하지만 추후에 이 전공을 살려 의료봉사에 참여해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아이들, 어른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보살펴 주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멕시코 교회에서 봉사할 때 아이들이 달려 나와서 정말 반갑게 껴안으며 인사할 때마다 큰 힘을 얻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들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도 스스럼없이 건네줄 때마다 내가 오히려 아이들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고 힘을 얻어 가는 것 같아서 남은 기간 더 열심히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아이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함께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10박 11일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도 많이 들고 필리핀 해외 봉사가 나에게 정말 큰 삶의 원동력을 제공해 주어 감사하고 이번 년을 뜻깊게 시작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며 인사를 하는데 마음이 몽클해졌으며 지금보다 더 큰 어른이 되었을 때 해외 봉사를 꼭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생긴 거 같아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전의 걱정과 두려움 모두 다 잊게 만드는 뜻깊은 순간,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황민선

봉사를 기획할 때와 실제로 가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할 때 계획대로 되지 않는 점이 많았습니다. 말이 안 통하고, 시간이 변경되고, 예상했던 사람 수와 다르고 등등 돌발상황이 많아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막상 겪어보니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어서 부서 단원들과 잘 해결해나간 점이 뿌듯했습니다. 현지의 학생들과 소통을 해가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이 어려웠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약 11일 정도의 일정이지만 그 안에 환경의 변화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다치고 아픈 단원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약이나 병원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사람은 언제든 아프고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병원비도 부담이 크고 약값도 훨씬 비싸서 의료보험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봉사를 위해서 밤자우마을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더미에 판자촌이 있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을 내서 의료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곳에는 감기를 앓는 어린이나 넘어지고 다쳐서 상처가 난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후 간호사가 되어서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된다면 이런 곳에 방문해서 좀 더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한 번 도전해보자는 마음으로 봉사에 지원하게 되었는데, 막상 와서 경험하니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배운 점도 많았고, 보람찼던 시간이었습니다. 해외 봉사를 다녀오고 생각해보니 현지의 문화도 체험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현지인들과 소통하고, 단원들과 서로 의지하면서 봉사를 잘 해냈던 기억들이 남아서 참여하지 않았다면 후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VII 단원 소감문

★ 황예지

일단 센터에 대한 소감을 먼저 쓰자면 처음 센터를 방문했을 때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들긴 했지만 대나무 같은 것을 올려서 나무집을 지어 살고 마을 전체에 쓰레기가 깔려있고, 심각한 악취가 났습니다. 이정도 일줄은 몰랐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걸어서 센터를 둘러보는데 센터 아이들이 우리를 따라오면서 손을 흔들고 수줍게 웃어주고 우리와 계속 함께 걸어서 마을을 둘러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그래도 너무 착하구나 느꼈습니다. 그 다음날 센터에 있는 쓰레기를 주우러 갔는데 센터 아이들이 우리 봉사단을 밝게 맞아주었습니다. 또한, 같이 쓰레기를 주워주려고 하고 어떤 아이는 제가 좋다고 계속 붙어있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센터에 정이 계속 갔고 제가 하는 봉사도 이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삶의 질이 올라가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활발하고 귀여웠습니다. 단지 아이들 모두 영어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거의 Hi, Bye 등등 기본적인 영어들만 되었고, 아이들의 수가 너무 많다보니 프로그램을 잘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는데, 의외로 우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잘 따라와주었고, 그래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이후에 그곳에서 의료봉사도 진행하였는데 더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콧물, 기침, 인후통 등 감기걸린 사람들이 많아서 신기하였고, 다들 상처가 났는데도 가만히 두어서 굵고 흉지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 심해지기 전에 우리가 의료봉사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고, 보람찼습니다. 우리 숙소쪽으로 직접 센터 아이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을 때 내가 속한 부서는 점심 밥을 만드는 당번이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맛있게 먹어주고 더 먹고 싶다고 해주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헤어지기 너무 아쉬웠고, 또 만나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교회에서는 센터 아이들보다 훨씬 상황이 나은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말고 성인도 많이 왔는데 다들 영어가 어느정도 되고 이해력도 빨라서 프로그램 진행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우리 말에 모두 집중을 해주어서 고마웠습니다. 교회 아이들도 우리를 너무 좋아해주었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름표가 있는데 몇몇 아이들이 그 이름표에 자기가 직접 번역해서 한글로 보고싶습니다. 사랑해 등등을 써주어서 감동이었습니다.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땐 봉사 기간이 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니 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습니다. 내년엔 제가 4학년이지만 다시 해외봉사 단원을 모집한다면 또 한번 가고 싶고, 다음번엔 학교에서 하는 해외봉사도 해보고 싶습니다.



★ 김세종

저는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친한형을 따라 해외봉사를 가려고 가벼운 마음으로 봉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봉사를 가서 바짜오 마을에 가고 멕시코 교회를 가서 아이들을 보면서 가벼운 마음보다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쓰레기를 청소하면서 굉장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다쳐있고 아픈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좋았고 더욱 열심히 힘이 되는데까지 도와줘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다 아이들과 굉장히 친해지고 이름도 알아가면서 굉장히 친해진 아이들도 생겨서 너무 즐거운 해외봉사였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순수했고 이번 봉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떨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가져가는 것이 많은 해외봉사였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앞으로 해외봉사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주저하지 않고 선뜻 나서서 해외봉사를 가겠다고 마음먹었고 다른 이들에게도 추천을 하면서 같이 가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자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었던 해외봉사였습니다.

★ 김영빈

이번 방학동안 집안에서 시간을 낭비하기 싫어서 해외봉사를 지원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하는 봉사이고 처음 해외로 나갈수있어서 약간 떨리는 마음이 컸습니다, 제가 노는 것을 좋아하여서 체육부서로 들어가 필리핀 초등학교 학생들과 밋자우에 사는 아이들과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면서 놀았습니다, 필리핀에 사는 아이들과 영어로 소통이 잘 안되어서 많이 힘든 부분이 많았지만 통역이 가능한 현지인이 있어서 생각보다는 많이 수월했던거 같습니다. 또 밋자우에서 쓰레기를 주울 때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열악한 환경보다 더욱 열악했던 환경이었던거 같습니다, 밋자우에서 아이들과 놀아줄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재밌게 노는 아이들을 보니까 약간 저 자신에게 반성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구를 좋아하는데 필리핀 사람들 대부분이 농구를 좋아해 현지인들과 농구를 하면서 노는 것이 좋았던거 같습니다. 10박 11일이란 시간이 필리핀에서 여러 봉사활동과 같이 봉사활동을 간 형,누나들과 놀다보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만약 다음에도 해외봉사 기회가 있다면 지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아름

다문화가정 학생이나 외국인 학생에 대한 편견을 깨고자 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필리핀에서 어눌한 한국말을 하는 학생이 전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학생은 학교생활이 힘들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공동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에 청소년지도사가 된다면 다문화청소년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진행되는 놀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았는데 필리핀 학생들이 잘 따라와주어서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배우려고 하고 함께 하려는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 청소년에게 프로그램을 했을 때와 별반 다른 모습을 찾을 수 없었고 한국 청소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해도 잘 어울릴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외봉사를 통해 스스로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고 한국에서의 모르고 있었던 소중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인종에 대해 차별 없이 대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청소년들을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어울림 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눌 때의 기쁨을 잊지 않고 실생활에서 남을 돕는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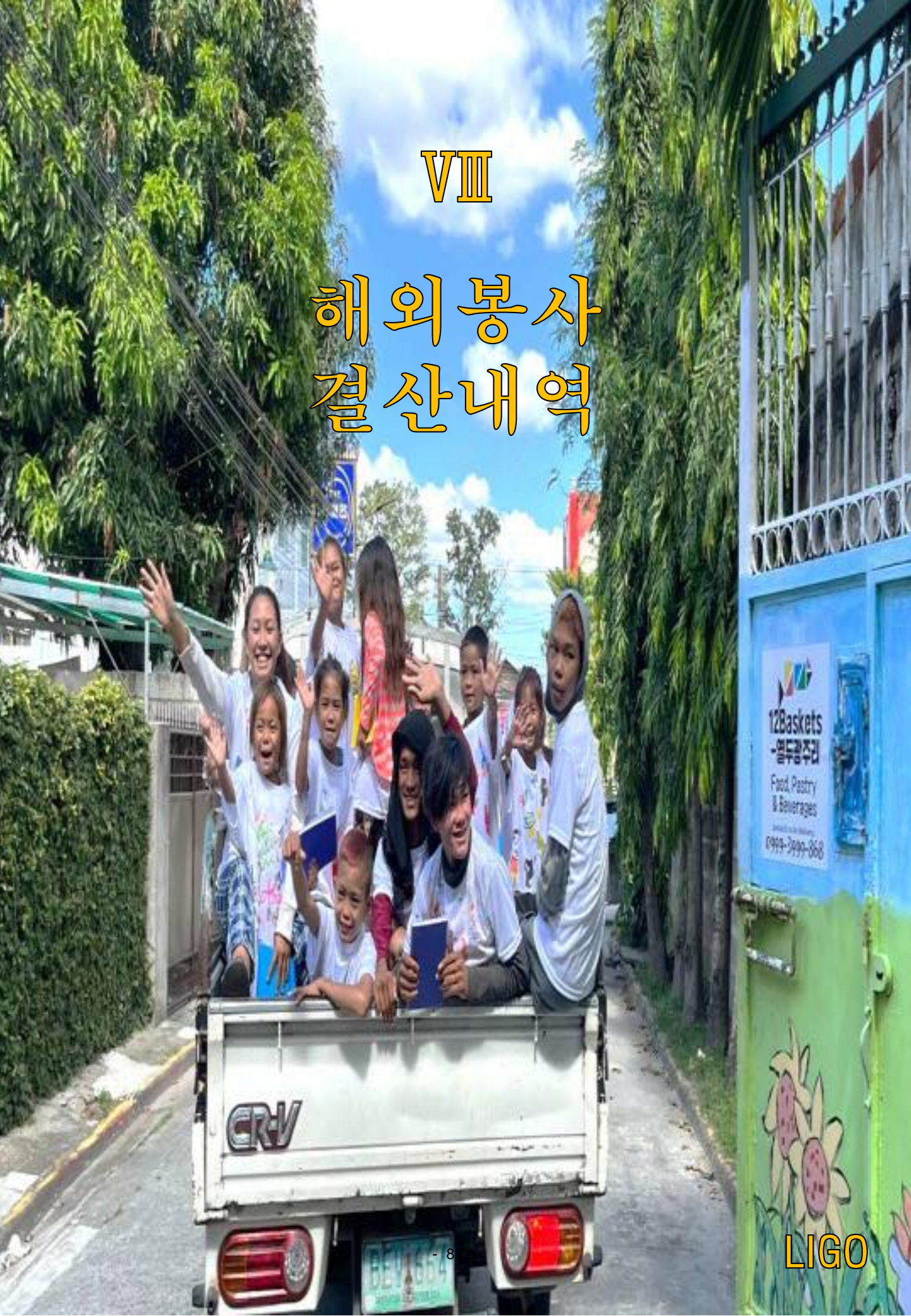
★ 이용빈

저는 해외봉사를 처음 가봐서 매우 설레는 마음으로 봉사를 준비했습니다. 봉사를 가고 나서는 저희가 정했던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바뀌는 상황도 많았지만 생각보다 힘들어도 재밌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짜오 마을에서 쓰레기를 청소했던 것입니다. 사실 청소전에는 처음보는 환경에 몹시 당황하고 계속 달려드는 벌레들에 많이 힘들고 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을 하게 되니 눈길이 안 가던 바짜오 마을 아이들이 같이 쓰레기를 주워 주는 모습에 저는 몹시 감동하고 더 열심히 청소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편견을 가졌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반성하게 됐습니다. 이번 봉사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봉사에 대한 뿌듯함입니다. 정말 힘든 봉사를 했다 하더라도 봉사를 제대로 수행하고 마무리를 한다면 더 큰 것을 얻고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온다면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다른 봉사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게 느껴집니다.



VIII

해외봉사 결산내역



VIII 2022년 동계 해외봉사 결산내역

날짜	입금·출금 내역	금액(원)	비고
~ 2022.12.09	자비 부담금 (입금)	9,500,000	
2023.01.05	학교 장학금 (입금)	19,000,000	계 28,500,000
2023.11.25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입금)	6,000,000	계 34,500,000
2023.12.02	항공료 (지출)	9,016,000	계 25,484,000
~ 2023.01.04	사전준비비 및 프로그램준비물 (지출)	4,174,430	계 21,309,570
~ 2023.01.05	사전준비 식대 및 발대식 (지출)	1,091,260	계 20,218,310
2023.01.10	공항식대 (지출)	299,800	계 19,918,510
2023.02.17	보고서 책자 및 해단식 (지출)	900,000	계 19,018,510
~ 2023.01.20	현지 지출금액(숙소, 차량, 식대, 준비물, 기증물품) (지출)	18,515,200	계 503,310
	간식,물,얼음,음료 (지출)	185,675	계 317,635
	기사탑(7일*2대*500페소) (지 출)	175,000	계 142,635
	농구골대 수리비 (지출)	116,375	계 26,260
	무전기 3대 (지출)	100,000	계 - 73,740

단장

류종현

인솔

이슬림

단원

강유정

국중우

권예은

김세종

김영빈

김지연

박선영

배진완

송효우

안희수

유아진

이아름

이용빈

이승아

전은수

최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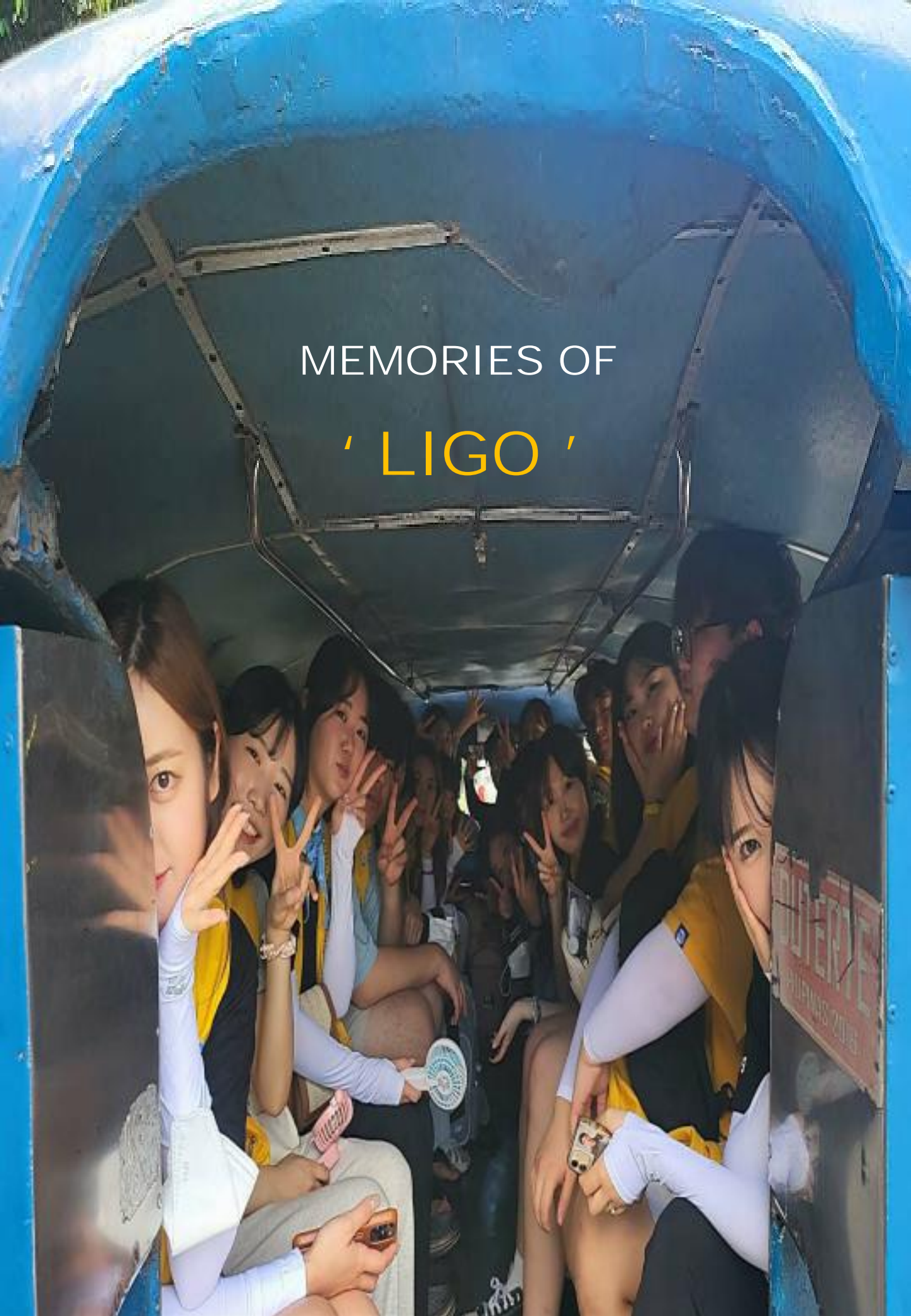
최소연

황민선

황예지



MEMORIES OF
' LIGO '



2022
Philippines

MEMORIES OF ' LIGO '



평택대학교
PYEONGTAEK UNIVERSITY



2022

' LIGO '

Philippines

adventure



